

네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서신애

정기 간행물 구로 라 00095

손 현 섭 편집

제502호

2023년 7월

인생의 길	손 현 섭	2
신약성서 번역본(마 22:21-46)	전 준 덕	3
요한계시록 듣기(51)	손 현 섭	12
주 여호와와 영이 내게 내리셨다	연 창 호	22
이사야서 강의 2	최 정 일	32
만화로 보는 한 줄 성경	메 나 리	56
시편 103편	한 정 주	58
노평구 선생 기념강연회 안내	편 집 실	67
한국무교회 여름 전국집회 안내	편 집 실	69

성서신애사

인생의 길

지난달 메나리의 만화를 보신 김유곤 선생님이 전화를 주셨다. ‘나도 90 대이다 보니 관심 있게 보았다’ 하시면서, 국민일보 기사를 추천하셨다. ‘진리의 샘’ 칼럼인데,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왔던 신앙인의 치매를 뇌 기능의 노화로 접근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기도의 어머니으로 인해 신앙에 들어온 아버지는 종손으로서의 모든 혜택을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겠다 선언하신 후,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다. 그런데 90을 넘으니 치매 증상이 나타났고, 이제는 8명의 어르신이 함께 지내는 노인홈에서 살고 계신다. 가정집 같아서 요즘은 산책도 잠깐씩 하도록 배려해주므로 이야기 나눌 시간이 충분하다. 하지만 아버지는 기억이 잃어가는 중이라 대화가 거의 불가능하다. 전번엔 그렇게 좋아하던 찬송마저 거부하셔서 가슴이 아팠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인생이 결국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하도록, 아니 세상을 기억하는 것조차 버리도록 하시는 것 같다.’

일본무교회의 쓰카모토(塚本虎二) 선생도 마지막 10년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런 고난의 시기였던 것 같다. 그걸 본 한 제자(大島智夫)는 이렇게 썼다.

“선생님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최후의 ‘비아 돌로로사’¹⁾를 지나고 계신다. 그래서 선생님을 뵈 때마다 더욱 웃음을 여미게 된다.”

신앙인도 인생의 마지막에는 늙어가고, 돌이킬 수 없는 병에도 걸리고, 무서운 사고도 겪고, 치매도 만난다. 모두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다.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치든 하나님께서 손잡아주시길 기도할 뿐. (손현섭)

1) 비아 돌로로사(Via Dolorosa)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던 최후 고난의 길이다.

Το ΚΑΤΑ ΜΑΤΘΑΙΟΝ ΑΓΙΟΝ ΕΥΑΓΓΕΛΙΟΝ

<맛다이오스에 의해(기록한) 기록한 복음>

(일명 : 마태라는 사람이 기록한, 기록한 복된 소식)

마 22:21-46

전 준 덕

21절 : λέγουσιν αὐτῷ, Καίσαρος. τότε λέγει αὐτοῖς, Ἀπόδοτε οὖν τὰ Καίσαρος Καίσαρι, καὶ τὰ τοῦ θεοῦ τῷ θεῷ.

사역 : 저들이 이예수스님께 대답하였습니다. “카이사르” 것입니다. 그러자 이예수스님은 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카이사르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시오.

주) 1. ἀπόδοτε : ἀπόδιδωμι(ἀπό+δίδωμι의 합성동사)의 제2과, 능동태, 명령법, 복수, 2인칭(5:26절 참조).

22절 : καὶ ἀκούσαντες ἐθαύμασαν· καὶ ἀφέντες αὐτὸν ἀπῆλθον.(ἀπῆλθαν.)

사역 : 그래서 저들은 이 말을 듣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이예수스님을 놓아둔 채 가버렸습니다.

주) 1. ἀφέντες : ἀφίημι(ἀπό+ῖημι의 합성동사)의 제2과, 능동태, 분사, 남성, 복수, 주격(3:15절 참조).

23절 : Ἐν ἐκείνῃ τῇ ἡμέρᾳ προσῆλθον αὐτῷ Σαδδουκαῖοι, οἱ λέγοντες μὴ εἶναι ἀνάστασιν, καὶ ἐπηρώτησαν αὐτόν,

사역 : 그때 부활을 부인하는 산두카이오스인들이 이예수스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이예수스님께 한 질문을 했습니다.

주) 1. ἐν ἐκείνῃ τῇ ἡμέρᾳ : (그 때에는, 그 당시에는)의 한 속어.

2. ἀνάστασιν : ἀνάστασις(ἀνά+στάσις의 합성어)(올라감, 부활)의 제3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수, 대격.

3. ἐπηρώτησαν : (12:10절 참조)

24절 : λέγοντες, Διδάσκαλε, Μωϋσῆς(Μωϋσῆς) εἶπεν, Ἐάν τις ἀποθάνῃ μὴ ἔχων τέκνα, ἐπιγαμβρεύσει ὁ ἀδελφὸς αὐτοῦ τὴν γυναῖκα αὐτοῦ, καὶ ἀναστήσει σπέρμα τῷ ἀδελφῷ αὐτοῦ.

사역 : 질문하기를 선생님! 모세는 어떤 사람이든지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의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해 결혼할 것이며 자기의 형을 위하여 후손을 세워야 할 것을 말했나이다.

주) 1. ἀποθάνῃ : ἀποθνήσκω(ἀπό+θνήσκω의 합성동사) (죽다, 마르다, 시들다, 썩다)라는 동사의 제2과, 능동태, 가정법, 단수, 3인칭.

2. ἐπιγαμβρεύσει : ἐπιγαμβρεύω(ἐπί+γαμβρεύω의 합성동사) (결혼하다, 근친이 되다, 친척이 되다, 결혼으로 친척관계를 맺다)라는 동사의 미래, 능동태, 직설법, 단수, 3인칭.

3. ἀναστήσει : ἀνίστημι(ἀνά+ῖστημι의 합성동사)의 미래, 능동태, 직설법, 단수, 3인칭(9:9절 참조).

25절 : Ἦσαν δὲ παρ' ἡμῖν ἐπτὰ ἀδελφοί· καὶ ὁ πρῶτος γάμοςς(γῆμας) ἐτελεύτησεν· καὶ μὴ ἔχων σπέρμα, ἀφῆκε τὴν γυναῖκα αὐτοῦ τῷ ἀδελφῷ αὐτοῦ.

사역 : 그런데 우리 중에 일곱 형제가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일 큰

형이 결혼 후 죽었나이다. 자손은 얻지 못했으므로 형의 아내를 남편의 동생에게(시집가도록) 허락하였나이다.

주) 1. γάμῃσας : (5:32절 참조)

2. ἐτελεύτησεν : ελευτάω(단축동사)의 제1과, 능동태, 직설법, 단수, 3인칭(2:19절 참조).

26절 : ὁμοίως καὶ ὁ δεύτερος, καὶ ὁ τρίτος, ἕως τῶν ἐπτά.

사역 : 이와 같은 식으로 둘째도, 셋째도(결국) 일곱째까지(그의 형수와) 결혼하여 모두 자손 없이 죽었나이다.

주) 1. ὁμοίως(부) : (비슷하게, 같은 방식으로, 같은 모양으로, 유사하게)

27절 : ὥστερον δὲ πάντων ἀπέθανεν καὶ ἡ γυνή.

사역 : 모두(이렇게) 된 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28절 : ἐν τῇ οὖν ἀναστάσει(οὖν) τίνος τῶν ἐπὶ ἔσται γυνή; πάντες γὰρ ἔσχον αὐτήν·

사역 : 그러므로 부활 때에 그녀가 일곱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나이까? 왜냐면 일곱 모두가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였기 때문입니다.

29절 : Ἀποκριθεὶς δὲ ὁ Ἰησοῦς εἶπεν αὐτοῖς, Πλανᾶσθε, μὴ εἰδότες τὰς γραφάς, μηδὲ τὴν δύναμιν τοῦ θεοῦ.

사역 : 그러자 예수님은 대답하사 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였기에 잘 못 생각하였소.

주) 1. πλανᾷσθε : πλανάω(단축동사)의 현재, 중(수), 직설법, 복수, 2인칭(18:12절 참조).

2. γραφάς : γραφή의 복수, 대격(21:42절 참조).

3. δύνανται : δύναμις의 단수, 대격(6:13절 참조).

30절 : ἐν γὰρ τῇ ἀναστάσει οὔτε γαμοῦσιν οὔτε ἐκγαμίζονται,(γαμίζονται,) ἀλλ' ὡς ἄγγελοι τοῦ θεοῦ ἐν(τῷ) οὐρανῷ εἰσι.

사역 : 자 부활 때에는 진정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오 오직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처럼 같소.

주) 1. γαμοῦσιν : γαμάω(단축동사)의 현재, 능동태, 직설법, 복수, 3인칭(5:32절 참조).

2. ἐκγαμίζονται : ἐκγαμίζω(ἐκ+γαμίζω의 합성동사) (결혼하다, 시집 보내다)라는 동사의 현재, 중(수), 직설법, 복수, 3인칭.

31절 : περὶ δὲ τῆς ἀναστάσεως τῶν νεκρῶν, οὐκ ἀνέγνωτε τὸ ῥηθὲν ὑμῖν ὑπὸ τοῦ θεοῦ, λέγοντος,

사역 :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여러분은 모르고 있소.

주) 1. ἀναστάσεως : ἀναστασις(ἀνά+στάσις의 합성어)의 단수, 소유격(22:23절 참조).

2. ῥηθὲν : (2:15절 참조)

32절 : Ἐγώ εἰμι ὁ θεὸς Ἀβραὰμ καὶ ὁ θεὸς Ἰσαὰκ καὶ ὁ θεὸς Ἰακώβ· οὐκ ἔστιν ὁ θεὸς θεὸς νεκρῶν, ἀλλὰ ζώντων.

사역 :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사악의 하나님이며 이아곱의 하나님이다”라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읽지 못하였소?)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오.

주) 1. ζώντων : ζάω(단축동사)의 현재, 능동태, 분사, 남성, 복수, 소유격(4:4절 참조).

33절 : καὶ ἀκούσαντες οἱ ὄχλοι ἐξεπλήρουντο ἐπὶ τῇ διδαχῇ αὐτοῦ.

사역 : 그래서 무리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에수스의 가르침에 대해 (정신이) 어리둥절 놀랐습니다.

주) 1. ἐξεπλήρουντο : (7:28절 참조)

2. διδαχῇ : διδαχή의 단수, 여격(16:12절 참조).

34절 : Οἱ δὲ Φαρισαῖοι ἀκούσαντες ὅτι ἐφίμωσεν τοὺς Σαδδουκαίους, συνήχθησαν ἐπὶ τὸ αὐτό,

사역 : 그래서 파리사이오스 사람들이 이에수스님께서 샬두카이오스 사람들을 아예 입을 막아 말 못 하게 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저들은 그 일에 대해 의논 차 모였습니다.

주) 1. ἐφίμωσεν : φιμόω(단축동사)의 제1과, 능동태, 직설법, 단수, 3인칭(22:12절 참조).

2. συνήχθησαν : συνάγω(σύν+ἄγω의 합성동사)의 제1과, 수동태, 직설법, 복수, 3인칭(2:4절, 12:2절 참조).

35절 : καὶ ἐπρωτότησεν εἰς ἐξ αὐτῶν νομικός, πειράζων αὐτόν, καὶ λέγων,

사역 : 그래서 저희 중에 한 율법 교사가 이예수스님을 시험코자 질문을 했습니다. 곧 문기를

주) 1. νομικός : (율법에 관한, 율법을 잘 아는, 율법 전문가, 율법교사, 율법가, 법관)의 제1, 제2 변화 형용사에 속한 남성, 단수, 주격.

36절 : Διδάσκαλε, ποία ἐντολὴ μεγάλη ἐν τῷ νόμῳ;

사역 : 선생님이시여, 율법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이 어느 것입니까?

주) 1. ποία : ποῖος의 여성, 단수, 주격(19:18절 참조).

37절 : Ὁ δὲ Ἰησοῦς εἶπεν(ἔφη) αὐτῷ, Ἀγαπήσεις Κύριον τὸν θεόν σου ἐν ὅλῃ τῇ καρδίᾳ σου, καὶ ἐν ὅλῃ τῇ ψυχῇ σου, καὶ ἐν ὅλῃ τῇ διανοίᾳ σου·

사역 : 그러자 이예수스님은 그 율법 교사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온 마음과 온 생명과 온 뜻을 다하여 당신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주) 1. ὅλη : ὅλος의 여성, 단수, 여격(1:22절 참조).

2. διανοία : διάνοια(διά+νοέω의 합성어) (통찰력, 이해력, 깨달음, 마음 의향, 생각, 뜻, 이해, 상상, 본성, 성미, 충동, 충격)의 제1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수, 여격.

38절 : αὕτη ἐστὶ πρώτη(ή μεγάλη) καὶ μεγάλη(πρώτη) ἐντολή.

사역 : 이것이 첫째이며 큰 계명이오.

주) 1. πρώτη : πρώτος의 여성, 단수, 주격(5:24절 참조).

39절 : δευτέρα δὲ ὁμοία αὐτῇ, Ἀγαπήσεις τὸν πλησίον σου ὡς σεαυτόν.

사역 : 또한 둘째는 그와 같습니다. “그대의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할 것이오.”

주) 1. ὁμοία : ὅμοιος의 여성, 단수, 주격(11:16절 참조).

2. πλησίον : (5:43절 참조)

40절 : ἐν ταύταις ταῖς δυσὶν ἐντολαῖς ὅλος νόμος(κρέμανται) καὶ οἱ προφῆται κρέμανται.

사역 : 이 두 계명 안에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매어 달려 있소이다.

주) 1. κρέμανται : κρεμάννυμι의 현재, 중(수), 직설법, 복수, 3인칭 (18:6절 참조).

41절 : Συνηγμένων δὲ τῶν Φαρισαίων ἐπηρώτησεν αὐτοὺς ὁ Ἰησοῦς,

사역 : 그런데 파리사이오스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이에수스님께 서 저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주) 1. συνηγμένων : συνάγω(σύν+ἄγω의 합성동사)의 완료, 중(수),

분사, 남성, 복수, 소유격(2:4절 참조).

42절 : λέγων, Τί ὑμῖν δοκεῖ περὶ τοῦ Χριστοῦ; τίνας υἱός ἐστιν; λέγουσιν αὐτῷ, Τοῦ Δαβίδ.(Δαυίδ.)

사역 :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에게는 그리스토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오? 누구의 자손이오? 저희가 예수스에게 “다비드 자손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43절 : λέγει αὐτοῖς, Πῶς οὖν Δαβίδ(Δαυίδ) ἐν πνεύματι Κύριον(καλεῖ) αὐτὸν καλεῖ,(κύριον) λέγων,

사역 : 예수스님이 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비드가 성령 안에서 그분을 어떻게 주님이라 호칭할 수 있겠소? 이어 말씀하시기를

주) 1. καλεῖ : καλέω(단축동사)의 현재, 능동태, 직설법, 단수, 3인칭 (1:21절 참조)

44절 : Εἶπεν ὁ Κύριος τῷ Κυρίῳ μου, Κάθου ἐκ δεξιῶν μου ἕως ἂν θῶ τοὺς ἐχθρούς σου ὑποπόδιον(ὑποκάτω) τῶν ποδῶν σου.

사역 : 주께서 나의 주님에게 말씀하셨소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네 발의 발등상에 놓을 때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였고.

주) 1. Κάθου : Κάθημαι의 현재, 중(수), 명령법, 단수, 2인칭(4:16절 참조).

2. δεξιῶν : δεξιός의 복수, 소유격(5:29절 참조).

3. θῶ : τίθημι의 제2과, 능동태, 가정법, 단수, 1인칭(5:15절 참조).

4. ἐχθρούς : ἐχθρός의 복수, 대격(5:43절 참조).

5. ὑποπόδιον : (ὑπό+πούς(발판, 발등상)의 제2변화 명사에 속한 중

성명사의 단수, 주격과 대격(본절은 대격).

6. ποδῶν : ποῦς의 복수, 소유격(4:6절 참조).

45절 : Εἰ οὖν Δαβὶδ(Δαυὶδ) καλεῖ αὐτὸν Κύριον, πῶς υἱὸς αὐτοῦ ἐστι·

사역 : 그러므로 다비드가 그분을 주님이라 호칭하면 어떻게 그의 아들
이겠소?

46절 : καὶ οὐδεὶς ἐδύνατο αὐτῷ ἀποκριθῆναι(αὐτῷ) λόγον, οὐδὲ
ἐτόλμησέν τις ἀπ’ ἐκείνης τῆς ἡμέρας ἐπερωτῆσαι αὐτὸν οὐκέτι.

사역 : 그래서 누구도 예수님께 대답 한마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
고 그날부터 어떤 사람도 더 이상 예수님을 향해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주) 1. ἐδύνατο : δύναμαι의 미완, 중(수), 직설법, 단수, 3인칭(3:9절 참조).

2. ἀποκριθῆναι : ἀποκρίνομαι(ἀπό+κρίνομαι의 합성동사)의 제1과,
수동태, 부정사(3:15절 참조).

3. ἐτόλμησεν : τολμάω(단축동사) (부정사와 함께 : 용기를 가지다,
감히 ~하다, 결심하다, ~하기로 하다, 용감하다, ~할 생각을 하다, ~할 마
음이 들다 (단독으로) : 용기가 있다, 용기를 내다, 용기를 보이다. 대담하
게 ~하다)라는 동사의 제1과, 능동태, 직설법, 단수, 3인칭.

(* 혹시 의문이나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전준덕 선생님께 연락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릴 것입니다. 연락처 : 010-4622-8903)

【7월호 오탈자 수정합니다.】

쪽	틀린 곳	수정
9쪽 9줄	καὶ χειρας, ᾧρατε	καὶ χειρας ᾧρατε
9쪽 15줄	(διά+κόνέω의 합성어)	(διά+κονέω의 합성어)

요한계시록 듣기 51회

(천 년 왕국)

손 현 섭

- 1절. 나는 또 한 천사가 아비소스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 2절. 그는 그 용, 곧 악마요 사탄인 그 옛 뱀을 붙잡아 결박하여,
3절. 아비소스에 던지고 닫은 다음에,
그 위에 봉인하여 천 년 동안 가두어 두고,
천 년이 끝날 때까지는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탄은 그 뒤에 잠시동안 풀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20:1-3)

1. 들어가며

지난 19장까지는 세상을 대표하는 바빌론의 몰락과 그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비통한 탄식이 있었고, 마침내 그리스도와 하늘의 군대가 세상의 왕들로 이루어진 군대와 일전을 벌이는 이야기가 그 뒤를 이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 불리는 싸움에서 하늘의 전사 그리스도는 단번에 승리를 거두었고, 사탄의 하수인인 적그리스도 무리는 최후를 맞았다.

특히 그동안 어린양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전사로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끄는 장면은 웅장하기 그지없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 모인 적그리스도의 군대는 철저히 패배하였고, 그들의 시체는 새의 먹이로 들에 버려지고 말았다.

바빌론의 몰락, 적그리스도의 패배는 인류의 운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기 위한 필연적 수순이다. 그리하여 이제 남은 것은 옛뱀이라고도 하는 용, 즉 사탄의 멸망이다. 이 20장은 바로 사탄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

를 담고 있다.

특히 이곳은 해석상 수많은 이론이 등장하는 천년왕국을 묘사하고 있다. 백마를 탄 하늘의 장수 그리스도의 결전이 천년왕국과 연결된다고 한다면 가 아니면 다시 한번 더 반복되는 이야기에 불과하다든가 하는 엇갈린 주장에 따라 천년왕국의 개념이 조금씩 달라진다. 참으로 다양한 견해가 있어 주의해서 읽어야 하는 부분이다.

오늘의 공부는 20장 1절부터 3절까지 짧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본 후, 천년왕국에 관한 연구 몇 가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2. 본문 살피기

사탄은 하늘로부터 추방당하여 지상으로 떨어졌지만, 수많은 사람을 움직여 그의 뜻을 아직 세상에 펼치고 있었다(12:7-12). 그러나 마침내 종말이 왔다. 요한은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본다. 그런데 천사는 아비소스(바닥을 알 수 없는 구덩이, 無底坑)의 입구를 열 수 있는 열쇠와 쇠사슬을 들고 있었다. 쇠사슬은 원수 사탄을 묶어두는 용도로 써야 하는 만큼 매우 컸다고(알뤼신 메갈렌 αλυσιν μεγάλην) 기술하였다.²⁾

이 원수는 12장 9절에서 밝히고 있는, ‘온 세상을 유혹하는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큰 용’이다. 천사는 사탄을 붙잡아 묶어 무저갱에 던져넣는다. 입구를 닫고 봉인을 한다. 사탄은 그곳에서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사탄을 무저갱에 가둔 까닭이 무엇일까? 그를 처벌하기 위함일까? 아니다. 사람들을 더 이상 유혹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결국 그가 활동을 멈춤으로 세상은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신자들에게 평화로

2) και ειδον αγγελον καταβαινοντα εκ του ουρανου εχοντα την κλειν της αβυσσου και αλυσιν μεγάλην(거대한) επι την χειρα αυτου.

운 낙원이 된다.

사실 이 이야기에는 고대의 신화적 요소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다. 수많은 민족의 신화나 전설에서 이런 류의 이야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 종말이 오기 전, 어둠의 세력을 결박하여 무력화시킨다는 스토리는 흔한 이야기이다. 그중 이란의 종말사상에 의하면, ‘아즈히 다하 카’라는 뱀이 종말의 때에 그 속박을 풀고 나와 최후의 결전을 벌여 신에게 패배한다는 이야기가 있다.³⁾ 또 유대교의 묵시문학(사 24:21-22⁴⁾)도 여호와께서 어두운 혼돈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것을 옥에 가둔다는 이야기가 있다.

물론 성서가 이런 신화와 전설에서 이야기를 따온 건 아니다. 만일 그러했다면 성서는 그저 신화·전설 모음집 정도의 수준일 것이다. 생각해 보자. 조물주의 프로그램은 알게 모르게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한다. 따라서 이런 이야기는 어느 나라에서나 나올 수밖에 없는 주제일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믿기에 성서의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가야 한다.

하늘에서 열쇠와 쇠사슬을 들고 내려온 천사의 행동이 참 간결하게 그려졌다.

- ① 붙잡아, και εκρατησεν(에크라테센, κρατω 잡다)
- ② 묶고, και εδησεν(에데센, δεω 결박하다)
- ③ 던지고, και εβαλεν(에바렌, βαλλω 던지다)
- ④ 열쇠로 문을 채우고, και εκλεισεν(에클레이센, κλειω 잠그다)
- ⑤ 봉인한다. και εσφραγισεν(에슈프라기센, σφραγιζω 인봉하다)

3) NTD 신약성서주해 요한의 묵시록, 202쪽.

4) 이사야 24:21-22 그날에 여호와께서 하늘의 타락한 천사들과 땅의 교만한 통치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죄수처럼 한 곳에 모아 지하 감옥에 가두어 놓을 것이며, 그들은 형벌이 확정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천사가 수행하고 있는 작업은 아무런 수사가 없이 진행된다. 그러나 단호하다. 저자는 και(그리고)를 붙여가며 착착 처리되는 작업과정을 차례로 기록하고 있다. 사탄(^{디아볼로스}διαβολος)은 순순히 이 일련의 과정에 응했을까? 성서는 그런 잔가지들을 다 생략하였다. 이 단순한 서술이 오히려 심판의 준엄함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렇게 악마는 잡혀 감금되었다. 그의 활동은 당연히 멈추었다. 이어지는 8절에서 보면, 사탄이 다시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 나온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주어진 평화는 일시적인데, 그 기간이 천 년이다. 천 년 동안 그리스도를 따르던 자들이 주와 더불어 왕 노릇을 하리라고 하여 천년왕국이라 부른다.

이 천년왕국은 수많은 성서연구자와 성직자들에게 영감을 주는 한편, 부작용도 가져왔다. 천년왕국의 기간에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한다는 기록 때문이다. 성실한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할 그날, 사탄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할 그 날을 기쁨으로 기다리게 되는 소망을 품게 되었다. 그러나 이를 교묘히 호도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사이비 전도자들에게는 듣는 자들을 겁박하는 단골 메뉴가 되기도 했었다. 따라서 더욱더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부분이다.

사실 이 천년왕국은 적대자 사탄이 어떻게 멸망해 가는가에 대한 설명 중에 나오는 일부분이라 볼 수 있다. 천년왕국이 언제이며, 어디이며, 왕노릇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등등 그 세부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 저자 요한도 바빌론 몰락-적그리스도의 패배-사탄의 멸망으로 나아가는 단계를 기록하는 중에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 동안 왕이 되어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탄의 멸망이 그 주제라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천 년 동안 다스린다는 부분에 더 주목하고 있다.

요한의 계시록이 그리는 종말의 과정은 에스겔서 37-40장의 전개와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다. 에스겔서는 죽은 자의 뼈들의 부활(37장), 곡과

마곡의 멸망(38-39장), 새로운 예루살렘(40장)의 구조로 되어있다. 요한계시록도 신자의 부활과 천년왕국(계 20:1-6), 곡과 마곡(20:7-10), 죽은 자의 부활, 최후의 심판(20:11-15), 새 하늘과 새 땅(21장)의 구성이다. 즉 ‘신자의 부활--> 사탄의 멸망--> 신천신지의 도래’로 그 진행이 거의 같다. 특히 곡과 마곡에 관한 진술이나 새 예루살렘의 측량 같은 특색있는 기사가 에스겔서와 계시록에 함께 기록된 것은 저자 요한이 에스겔서를 참고했다는 증거라고 본다.⁵⁾

3. 천년왕국설

천년왕국설은 천년설이라고도 한다. 천년왕국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들이다. 이런저런 설이 많으나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전 천년설, 후 천년설, 무 천년설이다. 하나씩 살펴보자.

1) 전 천년설(前 千年說)

예수 그리스도께서 7년 대환란이 끝날 때 재림하신다는 견해이다. 예수께서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시고 천 년 동안 지상에서 통치하신다. 그러다가 무저갱에 갇혔던 사탄이 잠깐 해방되면서 그 천 년 동안에도 기어이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모아 곡과 마곡의 전쟁을 수행하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유황 불못에 던져 철저히 섬멸하게 되고 드디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는 해석이다.

전천년설에서 주장하는 종말의 과정은 ‘7년 대환란→ 그리스도의 재림→ 성도의 부활→ 천년왕국→ 사탄의 멸망→ 최후의 심판→ 새 하늘 새 땅’이다.

전 천년설은 역사적 해석과 세대주의적 해석으로 구분된다.

5) 사다케 아키라(佐竹 明), 요한의 묵시록 하, 574쪽.

① 역사적 해석

이 견해는 성서의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 초기 교부들로부터 내려온 이 역사적 해석은 ‘전 천년설’의 정설이라 하겠다.

7년간의 모든 재앙이 끝나고,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군대를 이끄는 전사의 모습으로 재림하신다. 그리스도는 사탄의 하수인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섬멸하신다. 그리고 사탄은 아비소스에 천 년 동안 감금당한다.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 년 동안 다스리기 위해 부활한다. 부활한 성도들과 그리스도는 천년왕국에서 왕 노릇을 한다.

그후 사탄이 잠시 놓여나고, 아직 불신에 있는 자들이 사탄과 결합하여 최후 전쟁을 감행하나, 결국 유항불 못에서 영원히 멸망한다. 이어서 모든 인류가 다 부활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 후,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

이 ‘역사적 전 천년설’은 성서의 기사를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데, 그들은 문자대로 1,000년이라는 햇수를 실제라고 해석하는 점이 특징이다.

② 세대주의적 해석

먼저 세대주의가 무엇인가? 한병덕 선생의 설명을 잠시 인용한다.

세대주의(世代主義, dispensationalism)란 영국의 John Nelson Darby(1800-1882)에 의해 창시되고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의 Cyrus Ingerson Scofield(1843-1921)에게 전수되어 1909년 이른바 Scofield Reference Bible(스코필드 성경)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발행되고 이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급속도로 세대주의가 전파되게 되었다

세대주의는 성경이 말하는 인류 역사를 아래와 같이 일곱 시대로 나눈다.

① 무죄시대 (Innocence, 창조부터 인류 타락 전)

- ② 양심시대 (Conscience, 인류타락부터 노아)
- ③ 인간통치 시대 (Human Government, 노아부터 아브라함)
- ④ 약속시대 (Promise, 아브라함부터 모세)
- ⑤ 율법시대 (Law, 모세부터 그리스도)
- ⑥ 은혜시대 (Grace, 교회시대)
- ⑦ 왕국시대 (Kingdom, 천년왕국)

이처럼 시대구분을 한 후,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셨다는 것. 즉, 양심시대는 양심에 따라 살면 구원을 받고, 율법시대에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 은혜의 시대는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면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⁶⁾

위의 세대 구분에 따르면, 천년왕국은 일곱 번째의 왕국시대이다. 세대주의적 해석은 각 세대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상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에, 7년의 대재앙이 일어나기 전 성도들은 휴거를 맞아 하늘로 옮겨진다. 이때 예수의 첫 번째 공중 재림이 이루어진다. 땅에서 7년 대재앙의 참상이 벌어지는 동안 성도들은 하늘에서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한다. 그 후 예수의 두 번째 지상 재림이 있을 후,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세대주의적 해석은 매우 환상적이다. 성도들을 재앙에서 철저히 보호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도들이 일단 하늘로 휴거한 후 다시 내려와 천년왕국을 통치한다는 것이나, 예수의 재림이 시간차를 두고, 천상과 지상에서 두 번이나 일어난다는 전개는 왠지 억지로 짜 맞춘 듯한 느낌을 준다.

인류 역사를 구분한 세대주의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세대주의적 전 천년설의 ‘예수의 공중 재림 · 성도의 휴거 → 7년 대재앙 →

6) 한병덕, 요한계시록 연구 51회 ‘천년왕국론(계 20:4)’.

예수의 지상 재림·천년왕국 통치'의 전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구나 대재앙을 피하기 위한 성도의 휴거라는 세대주의적 해석에 따라 휴거 소동을 벌였던 다미선교회 사건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재림을 땅의 모든 족속이 보리라 하셨고(마 24:29-31) 예수의 재림과 함께 '즉시' 하늘이 사라지고 천체는 불에 타서 녹아버릴 것이며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이 타서 없어진다는 베드로의 증언(벧후 3:10)을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견해이다.

2) 후 천년설

후 천년설은 천년왕국 이후에 예수의 재림이 일어난다. 인간의 지혜가 발달함에 따라 진보 발전을 거듭하여 이상사회를 건설하리라고 보는 낙관론적 해석이다. 지금 비록 세상이 험악하나 차츰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천년왕국의 모습이 이루어진다. 이 천년왕국이 끝나면서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사탄의 멸망과 최후의 심판이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매우 긍정적이며, 희망적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20세기에 들어와서부터 힘을 얻지 못하였다. 이론적 근거의 약점 때문이 아니다. 실제로 우리 인류가 겪어온 역사적 상황이나 경험에 의해서였다. 인간의 욕심에 의한 끝없는 전쟁과 살육, 자연의 파괴 등 이 세상이 아름다운 천년왕국이 될 수 없다는 점 때문이었다.

3) 무 천년설

무 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없다는 의견이 아니다. 천년이라는 기간을 문자적 숫자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확언하고 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 시더라. (마 4:17)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히 12:28)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 셴다. (골 1:13)

밀줄 그는 ‘가까이 왔다, 받았다, 옮기셨다’는 우리 자신이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음을 의미한다. ‘하나님 나라’를 어떤 공간이나 시간 의 차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통치의 개념으로 보자는 의견이다. 누가 다스리는 나라인가로 이해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무천년설 주장의 근거가 있다.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를 상징적인 천년왕국으로 본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벌써 2천 년이 지난 사건인데, 어떻게 천년왕국이라는 것 인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무 천년설에서는 숫자를 상징으로 해석한 다. 그런 뜻에서 천 년이라는 시간도 ‘완전수 10과 관련된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가 확보되는 긴 기간’으로 받아들인다.

무천년설에서 제시하는 종말과정은 단순하다. 그리스도의 초림→ 대 환난→ 그리스도의 재림→ 성도의 부활→ 최후의 심판→ 새 하늘 새 땅 이다. 이 과정에 천년왕국이 빠져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탄생과 재림 사이에 성도로서 마음에 천국을 품고 살면서도 불신자들과 함께 대환란 도 겪는 바로 지금, 현재의 삶이 천년왕국이라는 주장이다.

3. 소감

오늘 공부한 20장의 첫 세 구절은 사탄의 멸망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든 채 하늘에서 내려와 우선 사탄 을 가두어 버렸다. 그 후 펼쳐지는 사건이 천년왕국이다.

천년왕국! 듣기만 해도 매우 설레는 말이다.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는 뭔가 비밀스럽고 신비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아이탬이다. 과연 천년왕국이란 무엇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지 비밀을 풀고자 사람들은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주장한다.

나는 여러 개의 천년설 중 무 천년설을 취하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미 세상에는 평화가 시작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하늘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했던 노래를 생각해 보라. 그때부터 지상에는 이미 평화의 천년왕국이 시작되었다고 믿고 싶다.

그러나 나의 처지를 보면 지금이 ‘성도가 왕 노릇을 하는 왕국시대’라 할 수 있는가? 나는 신자이지만 지금도 하루하루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에 처하기도 한다. 이런 형편이니 지금이 천년왕국이라는 말에 수긍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다! 외견상 왕 노릇이라 할 만큼 특별한 건 사실상 전혀 없다. 다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왕이 누리는 온갖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의 앞날에는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예약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성취하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가 지금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이나, 실상은 강한 자요, 누구도 꺾을 수 없는 힘 있는 자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요일 4:4)

주 여호와와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사야 61장)

연 창 호

주 여호와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사 61:1~3)

○ ‘주 여호와와 영’은 성령입니다. 1~3절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1인칭인 ‘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누구일까요? 이사야일까요, 예언자일까요? 바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여호와와 종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워 그에게 영을 부으시고, 여호와와 종을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메시아가 바로 ‘나’입니다.

그럼 메시아는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받은 후 가버나움에서 공생애에 들어갔고, 얼마 후 고향에 도착해 바로 회당에 들어가 이사야의 이 말을 찾아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
 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
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
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
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고 앉으시니, 회당
 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눅
 4:16~21)

이사야 61장의 예언을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
 님의 공생애는 이사야 말씀의 선포와 함께 시작되었음을 여기서 알 수 있
 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58장에서 말한 참된 금식⁷⁾의 정신입니다. 문자를
 재해석하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
 리 삶의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종교적인 숭배를 받는 하늘
 에서 인간의 역사로 개입해 들어온 사건이 바로 예수의 등장입니다. 하나
 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 삶의 현장에 낮은 자로 오셨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사셨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현현이 예수
 입니다.

예수는 이사야 61장을 삶의 현장에서 재해석하시고 이 일이 이루어졌다
 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예수가 다른 종교가들과 다른 점입니다. **종교가들**
은 누군가를 숭배해 신격화시키고, 그를 팔아 영업하는 종교장사꾼들입니

7) 사58:6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
 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찢는 것이 아니겠느냐”

다. 그것이야말로 우상숭배입니다. 참이 아니라 거짓입니다. 거짓 종교가들은 예수를 죽였고 다시 그를 숭배의 대상으로 만들어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사에 대한 해석을 예수처럼 삶의 역사 현장에서 고백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 역시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공의를 외치면 예나 지금이나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가 외친 복음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란 무엇일까요? 죽은 뒤에 가는 곳인가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이사의 주장입니다. 예수가 그 첫 열매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받은 사람들의 심령입니다. 앞에서처럼 메시아를 예수로 해석한 것은 예수의 부활 이후의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해석일 뿐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예수가 메시아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 자체라고 한 것은 교회의 요청이자 교리의 필요상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가 수백 년을 거치면서 제도화되면, 사제계급이 생기게 마련이고, 교조를 신격화시키게 마련입니다. 그럴 경우, 교회는 발전하겠지만 그 속에 담긴 순수한 알맹이는 놓쳐 버리고 껍데기만 숭배하는 것으로 변질되게 마련입니다.

누가 메시아를 고대합니까. 가난하고 억눌린 자가 기다립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먼저 임합니다. 메시아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 주고, 바빌론의 포로(죄와 악)을 해방하고, 갇힌 자를 놓아주며,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해는 희년(禧年)⁸⁾을 말합니다. 50년마다 찾아오는 희년은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때요,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영원한 은혜의 때가 도래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해서는 안 된다. ...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나는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때가 도래했으니 슬픔과 근심 대신에 찬송과 의와 영광이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통한 일을 다 풀어 주십니다. 이것을 보복이라 하고 신원(伸冤-원통함을 풀어 줌)이라 합니다. 보복은 복수요 심판입니다. 심판은 악인에게 멸망이요 주의 백성에게 구원입니다. 의의 나무는 공의의 나무로 상수리나무나 참나무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성령을 받아 자기의 사명을 자각해 행동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인 ‘아나이’는 물질적인 가난이 일차적인 뜻입니다. 현대교회는 자꾸 영적인 가난이라고 설교하며 사회경제적 가난을 외면하는데, 이는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정치가 정의롭고 공의롭기를 요구합니다(시 72:4). 주류 언론에선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은 부를 원해 노조를 만들어 투쟁한다고 왜곡하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은 불의와 억압에서 기원하므로 다만 공의롭기를 요구할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와 영이 임한 종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는 누구인가요. 그것은 의인으로 살면서 환난과 고난을 겪는 자를 말합니다. 포로된 자는 누구인가요. 빛을 저 노예로 전락한 자를 말합니다.(물론 현대교회에서 죄의 노예에서 풀리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음) 그들은 희년이 오면 자유를 얻습니다.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라는 ‘놓임’은 ‘페카흐 코아흐’인데 희년이 와서 자기의 고향과 가족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일차적인 뜻입니다. 희년이 시작되는 날에 선포하는 외침이 ‘데로드’인데 ‘데로드’는 자유를 상징합니다.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잃어버린 땅을 되찾는 것, 바로 그것이 정의와 공의의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회 경제적으로 세상 질서가 전복되는 개벽이자 혁명적인 사건이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이 손수 심으신 ‘義의 나무’입니다(사 60:21). 현대교회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의 대상

으로만 알뿐, 그들이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핵심임을 놓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는 보복이란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사야 61장 2절의 보복이란 말을 읽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이사야서의 구절을 빼고 읽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복이란 말을 빼 건, 예수님이 아니라 누가복음 기자의 신학적인 의도였습니다. 누가복음의 구절(눅 4:16~21)은 이사야서 61장만 근거해 한 말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기자는 이사야서 58장 6절까지 병합해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한다는 관점으로 두 말을 녹여 내었습니다. 누가는 이사야서 ‘상한 자를 고친다’는 구절을 빼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는 구절은 추가했습니다. 물론 당시의 기록이 대체적인 뜻을 살리는 방향의 기록이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누가복음 기자가 이사야서에 입각해 메시아로서의 나사렛 예수를 재해석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누가복음에는 보복이란 말이 없습니다. 보복을 메시아가 재림할 때 행해지는 심판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을 수 있습니다. 보복은 억울하고 원통한 자의 한을 풀어 주는 신원입니다. 부활사상의 탄생 역시 억울한 자의 신원을 풀어 주는 것(단 12장)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만은 이 억울한 자를 기억하고 우리 편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羲의 나무라는 새 이름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메시아가 우리의 심령에 임하면 슬픔 대신에 찬송이 나옵니다. 메시아로 인해 우리를 하나님의 羲의 나무라 부릅니다. 하나님은 부자와 권력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를 택해 의의 나무라 합니다. 이스라엘은 고대 근동 국가 중에서 가장 연약한 민족이었습니다. 부자는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현재만 믿습니다. 메시아를 이야기하면, 오히려 중상모략이라 박해하고 죽여버립니다.

가난한 자들과 약소민족만이 하늘을 우러러 메시아를 대망합니다. 그러므로 58장에서 보듯이 진정한 금식은 자기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내 가

난한 이웃을 돌아보고 묶인 자와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금식은 자기의 육적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희년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죄 사함 뿐만이 아니라 억압에서 해방하시는 메시아입니다. 의로운 자는 세상의 불의한 권세에 저항하고, 또 이로 인해 고난의 가시밭길을 걷습니다. 세례요한이 걸어간 길을 예수 또한 걸어갔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로 이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예수님이 열었습니다. 누구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와 종을 통해 역사합니다. 종의 사역을 통해 가난한 자, 슬픈 자, 포로되고 갇힌 자들이 자유와 해방의 희년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본 비전입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와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 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와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사 61:4~7)

○ 4~7절은 예루살렘의 생활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너져 황폐해버린 예루살렘성은 다시 중수될 것입니다. 5절의 외인은 뜨내기들을 말합니다. 뜨내기와 외국인이 이스라엘에 와서 노동을 하므로 주의 백성은 이제 힘든 노역을 하지 않습니다. 주의 백성은 이제 다 여호와의 제사장입니다. 레위 지파는 없어지고 말았으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이 제사장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죄를 사해 주는 제사를 집행한 분입니다. 바로 죄를 사해 주는 퍼포먼스를 한 분들이지요. 이제 신약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 사명입니다. 인간이 죄 사함을 받는 길은 예수의 보혈을 믿는 믿음 이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신약시대에 주의 백성은 모두 영적으로 왕 같은 제사장⁹⁾입니다.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고 하나님의 계시가 역사에 새겨져 있습니다. 성도는 의의 나무와 함께 왕 같은 제사장이란 이름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제사장이란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봉사자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여호와를 섬기는 일은 레위인과 제사장의 일이었습니다(출 28:35). 그런데 이사야는 자유와 해방을 받은 자들을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부릅니다. 여기서 루터의 만인사제설 이전에 이사야가 만인사제설을 외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 이스라엘 전체를 제사장 나라로 부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기도 합니다(출 19:5~6). 더욱이 이사야는 이방인까지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사 56:6).

인간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그 말씀은 문자에 담겨 있지만, 그 독특한 문자라는 표현 속에 담긴 보편성을 재해석해 내야 합니다. 문자 역시 상징의 세계이기 때문에 시대에

9) 벰전2:9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맞게 재해석해야 합니다. 부분에서 전체를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인류의 역사를 통찰해야 합니다. 이렇게 삶의 여정은 부분에서 전체를 보려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평생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아픔을 정확히 기억하고 손해 받았던 것을 두 배로 갚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은 유산을 상속할 때 만일 자식이 세 명이면 넷으로 나누고 장자에게 그 둘을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장자에게 두 배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세계에 여러 민족이 있으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장자와 같이 우대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부심이요, 자긍심입니다.

무릇 나 여호와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 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못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사61:8~9)

○ 8~9절은 하나님의 도성이 정의와 진실의 도성이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는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의 강탈을 미워합니다. 불의에 빠진 사회는 불로서 심판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복을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불의한 사회에 대한 심판이었으므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그 사회가 멸망한 것은 그 사회에 의인 열 명, 아니 다섯이 없다는 증거 아니겠는지요. 이것이 이사야의 정치의식입니다. 신약시대가 전개된 이후로

이스라엘은 중동에 있는 현실의 이스라엘 국가가 아니라, 교회요 신자 자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만민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선민으로 삼아 주시고 빛의 사명을 담당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로 서서 성령 안에 거할 때,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복 받기를 바라는 분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복 중의 복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겹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사61:10~11)

○ 10~11절은 시온의 감사 찬양입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관장하는 분은 주 여호와입니다. 복이든 고난이든, 구원의 주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¹⁰⁾.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는 현세의 부귀공명을 추구하나,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공의로움을 찬양합니다. 찬양이 예배이자 기도입니다. 찬양이 끊긴 심령은 어둠의 심연에서 허우적거리게 마련입니다. 저는 찬양이 끊긴 어둠의 터널을

10) 허박국의 노래가 그것이다. 박3:17~18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랜 세월 겪어 보았습니다. 어느 순간 찬양이 일상에서 사라져 버려 가슴이 삭막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찬양과 감사가 끊기면, 지옥이었습다. 찬양의 회복은 역시 주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의식주가 필요하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뿐입니다. 나머지는 맡기고 삽니다. **사나 죽으나, 흥하나 망하나, 일체를 주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이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10절의 ‘나’는 우선 모든 나라 앞에서 우뚝 선 존재이니 이스라엘 민족, 시온을 가리킵니다. 이토록 구약의 구원은 공동체적 성격이 강합니다.

메시아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분입니다. 바빌론의 포로 생활에서 주의 백성은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그 열망은 그리스를 거쳐 로마의 압제하에서도 여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작정한 때에, 자신의 아들을 역사 속에 육화(肉化)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메시아¹¹⁾입니다. 구원의 옷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입어야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¹²⁾.**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즐겨 읽은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 예수님을 숭배의 대상으로만 섬기면, 그 또한 우상숭배에 불과한 것임을 알고, **깜짝 놀라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11) 구약, 특히 이사야서의 메시아는 일반명사이다.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그리스도(기름부은 자)라고 한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어느 민족이든지 그 민족을 구원하는 자는 메시아이다. 내부에 있는 외부에 있는지 말이다. 이사야는 비록 이방인이고 이교도임에도 고레스를 메시아라고 말한다. 그가 바빌론의 압제로부터 유대인을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정한 메시아는 나사렛 예수이다. 나사렛 출신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가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이것이 신약성도의 고백이요 바울의 고백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유명사가 되었다.

12) 마태22:10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사야서 강의 2

최 정 일

A. 9장 8-21절(에프라임을 벌하시는 주님의 손)

- 안소근 교수의 해석 -

1. 이 단락에서는 에프라임(북왕국 이스라엘)에 초점을 맞추는데, 9장 8절부터 어디까지를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선고인지가 다투어진다.

(1)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보는 견해

그 논거는 ‘그래도 그의 분노는 가시지 않아 그 드신 손을 아직도 내리시지 아니하시네’라는 후렴구가 반복되는 것을 중심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 10장 1절부터 10장 4절까지 남왕국 유다를 대상으로 한다는 견해

그 논거는 1)위의 후렴구는 5장 25절에도 나타나고, 2)10장 1절의 ‘너희가 비참하게 되리라’를 강조한다면, 10장 1-4절은 5장 8-24절 다음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 견해에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선고는 9장 8-21절이 된다.

2. 각절 주해

(1) 9장 8절 : 주님께서 아굽을 거슬러 말씀을 보내시니 그것이 이스라엘 위로 떨어졌다. 이는 아시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입한 것을 가리키고, 주님께서 말씀을 보내신 것은 주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내리신 심판으로 이해된다.

(2) 9장 9절 : 모든 백성이 에프라임과 사마리아의 주민들이 이를 알고서도 오만하고 자만한 마음으로 말했다.[잠 16:18-19]과 [사 2:11-12]

(3) 9장 10절 : 토담이 허물어졌으니 네모 돌로 쌓자. 돌무화과나무가 부서졌으니 향백나무로 대신하자.

행위의 주체' 표시되지 않는 '무너졌다, 찌혀 넘어졌다'라는 수동태표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하셨다는 뜻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그것보다 더 좋고, 더 튼튼한 것으로 적들을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적 수단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보내신다.

(4) 9장 11절 :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그들을 거슬러 적들을 일으키시고 원수들을 부추기셨다.

1) 여기서 히브리어 본문에, '차레 레친:르친의 적들'으로 되어 있으나, 문맥상 맞지 않다. 왜냐하면 '르친'은 아람(=시리아)의 왕이고, 9장 12절에서는 아람이 이스라엘을 삼켜버렸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2)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견해들이 대립한다.

① 제1설: '르친'을 생략하고(후대에 들어온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냥 '적들'로만 번역하는 견해이다.

② 제2설: '적들, 즉 르친'으로 번역하는 견해이다.

③ 제3설: 가) 실제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장 크게 침략한 것은 아시리아였으므로 르친의 적을 아시리아로 해석하는 견해이다. 나) 그리고 이 견해에서는 9장 12절에서, 아람과 블레셋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삼켰다는 것은 아시리아의 세력이 팽창하기 이전으로 보고, 여러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열거한다고 해석한다.

(5) 9장 12절: 동에서는 아람이, 서에서는 블레셋이 입을 크게 벌려 이스라엘을 삼켜버렸다. 이 모든 것에도 그분의 진노는 풀리지 않아 그분의

손은 여전히 뻗쳐있다.

1) 이 모든 것에도 그분의 진노는 풀리지 않아 그분의 손은 여전히 뻗쳐 있다는 후렴구는 5장 25절과 10장 4절에도 나온다.

2) 그래서 10장 4절의 위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다음과 같다:

① 제1설 : 5장 25절을 9장 21절 다음, 또는 10장 4절 다음으로 옮기는 견해이다.

② 제2설 : 10장 1-4절을 5장 8-23절(불행선언)과 같다고 보고, 이를 5장으로(즉 5:8-24절 다음으로) 옮기는 견해이다.

(6) 9장 13절 : 그러나 이 백성은 자기를 치신 분에게 돌아가지 않았고 만군의 주님을 찾지도 않았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치신 것(여러 차례의 전쟁들)은 그 목적이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였음’이 드러난다.

(7) 9장 14절 :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를, 종려나무 가지와 골풀을 단 하루에 잘라 버리셨다.

‘머리와 꼬리, 종려나무 가지와 골풀’은 높고, 낮고, 부유하고, 가난한,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 [사 19:15]과 [신 28:13-44]에도 나와 있다.

(8) 9장 15절: 원로와 고관이 머리고 거짓을 가르치는 예언자가 꼬리다.

1) 집권자들 곁에는 그들을 편드는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다. 권력자들은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아 넘어간 것일까, 아니면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거짓 예언자를 자기편으로 이용하여 백성들을 우롱한 것일까? 예언자는 본래 사회적으로 꼬리에 속하는 계층이 아니지만, 거짓 예언자는 꼬리가 된다.

2) [애 2:14]에도 나와 있다.

(9) 9장 16절: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잘못 이끌어 그 지도를 받은 이들이 혼란에 빠졌다.

‘이 백성의 지도자가 잘못 인도하니’란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다른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을 가리킨다.

(10) 9장 17절: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의 젊은이들을 탐탁히 여기지 않으시고 그들의 고아와 과부들을 가엾이 여기지 않으셨다. 그들은 모두 무도한 자이며 악행을 저지르는 자이고 입이란 입은 모두 몰지각한 것만을 말한다. 이 모든 것에도 그분의 진노는 풀리지 않아 그분의 손은 여전히 뻗쳐있다.

1) 여기서 ‘그러므로’(알 켄)는 예언자들의 심판선고에서 최악의 상황을 진단한 다음 앞으로 있게 될 징벌을 도입하는 구절이다. 따라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젊은이들과 고아와 과부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죄의 결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2) [신 10:18]에도 이렇게 있다.

3) ‘주님께서는 그들의 젊은이들을 탐탁히 여기지 않으시고’는 백성 중 특히 젊은이들이 겪게 될 고통, 즉 전쟁을 가리킨다. 즉 젊은이들이 전쟁에서 희생되기 때문에 그 식솔들은 고아와 과부가 될 것이고, 하나님은 의지할 곳 없는 그들마저도 가엾게 여기지 않으실 것이다.

4) [렘 11:21-22]에 이렇게 있다.

(11) 9장 18-21절 (18절) 정녕 사악함이 불처럼 타올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집어삼키고 잡목 숲을 사르니 연기 기둥이 휘돌며 치솟는다(19절). 만군의 주님의 분노로 땅은 타 버리고 백성은 불꽃의 먹이처럼 되어 버렸

다. 아무도 제 이웃을 붙잡지 여기지 않는다. (20절) 오른쪽을 잘라 먹어도 배가 고프고 왼쪽을 뜯어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아 사람마다 제 팔의 살을 뜯어 먹는다(21절). 므나쎄는 에프라임을, 에프라임은 므나쎄를 뜯어 먹고 이들은 함께 유다에게 달려든다. 이 모든 것에도 그분의 진노는 풀리지 않아 그분의 손은 여전히 뻗쳐 있다.

1) 이 단락에서는 특히 ① 북왕국 이스라엘 안에서 벌어지는 먹고 먹히는 상황과 ②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사이의 전쟁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2) 9장 18절의 기사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자기들 안에서 서로를 잡아먹는 데에 이른다. 재앙이 점점 더 심해진다는 내용이다.

3) 이 단락에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악함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이 그 불에 먹히고, 그 다음에는 ‘스스로 뜯어먹는데’ 이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4) 9장 21절에서, ‘므나쎄는 에프라임을, 에프라임은 므나쎄를 뜯어먹고’란 북왕국 이스라엘의 중요한 두 지파가 서로 뜯어먹었다는 뜻인데, 대체로 예로보암 2세(재위:B.C.782/1-753 :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번영기) 사후에 있었던 잦은 쿠데타들을 배경으로 한다. 예로보암 2세는 40년을 통치했는데, 그 후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B.C.723/2년)까지, 25년 동안에 6명의 왕(즈카르야, 살룸, 므나헴, 프카흐야, 폐카, 호세아 왕)이 다스릴 정도로, 쿠데타가 잦았다.

B. 10장 1-4절

1. 안소근 교수의 해석

(1) 단락의 개론

1) 이 단락은 (사 9:8-21)와 차이가 있는데, 특히 ①10장 1절의 불행선

언과, ② 10장 3절의 질문에서 나타나는 대화형식이 그렇다. 이 단락은 이스라엘이 겪은 재앙뿐만 아니라 장차 닥쳐올 재앙의 날도 예고한다.

2) 주요 내용은 북왕국 이스라엘 또는 남왕국 유다 모두에 적용될 수 있다.

3) 10장 1-2절은 입법과 법안의 불의를 고발하고 있고, 10장 3-4절은 그들에게 다가올 징벌의 날을 선포한다.

(2) 각절 주해

1) 10장 1절 : 불행하여라, 불의한 법을 세우고 고통을 주는 규정들만 써 내려가는 자들!

① 정의를 세워야 하는 법령이 불의하다는 것은 법 자체의 개념과 이념에 위배된다. 법령을 제정하는 목적은 정의를 세워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인데[함무라비 법전 그리고 구약성서에서도 법전들은 고아, 과부, 이방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중시함], 현실적으로, 권력자들은 대부분 자신에게 유리한 법령을 제정하고, 나아가 법정에서 판결을 때릴 때 힘 있는 자들의 편을 들어준다.

② [사 1:23; 3:14-15; 5:23]에서는 '부패한 법정'을 고발하고 있다.

2) 10장 2절 : 이 자들은 힘없는 이들의 소송을 기각시키고 내 백성 가운데 가난한 이들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들을 약탈하고 고아들을 강탈한다. [눅 18:1-8]과 [시 68:5]에서도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지 않는 예와 과부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본다.

3) 10장 3절 : 너희는 징벌의 날에, 멀리서 들이닥치는 폭풍의 날에 어찌하려느냐? 누구에게 도망하여 도움을 청하고 너희 재산은 어디에 갖다 놓으려느냐?

① '징벌의 날(=벌하시는 날)'에서 징벌(피쿠다)은 '찾아옴, 탐문, 조사'

를 뜻하고, 법률용어로는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한다. [지혜서 3:7] ‘사후에 있을 심판’에 대하여 그분께서 의인들을 찾아오실 때 그들은 빛을 내고, 그루터기만 남은 밭의 불꽃처럼 퍼져 나갈 것이다.

② ‘징벌의 날’은 주님께서 찾아오시어 잘못을 따지신다는 의미에서, 인간이 행한 일에 대하여 역사 안에서 내려지는 심판들을 지칭하며, 종말의 최종적 심판은 아니다.

③ [렘 6:15], [렘 8:12] 및 [렘 10:15]에는 각각 이렇게 있다.

④ ‘먼 곳에서 폭풍처럼 재난이 닥쳐오는 그 날’의 뜻에 대하여는, 가신현(神顯)에 수반되는 현상으로 보는 견해와 나) 이스라엘에 내려진 징벌인 외적의 침입으로 보는 견해로 나뉜다.

4) 10장 4절 : 포로들 사이에 쭈그려 앉거나 살해된 자들 사이에 쓰러지는 수밖에 없다. 그분의 진노는 풀리지 않고 손이 여전히 뻗쳐있다.

① ‘포로들 사이에 끼여 쭈그리고 앉았거나’란 전쟁포로로 끌려가 노예가 되거나의 뜻. ‘시신들 사이에서 텅굴 수밖에’란 죽게 된다.

② ‘이 모든 것에도 그분의 진노는 풀리지 않아 손은 여전히 뻗쳐있다’란 이스라엘은 고통을 겪고도, 당신 백성이 돌아오기를 바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 먼저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후에는 남왕국 유다가, 철저한 멸망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라라는 뜻이다.

③ [사 6:11·12]에도 그렇게 있다.

2. 루터의 해석

(1) 10장 1-2절

1) 이는 율법교사(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죄를 가리킨다.

2) ‘불의한 법’이라고 이사야가 강조한 이유는 불의한 법은 원래 인간의 정의(인간이 만든 법)를 가리킨다. 왜냐면 성령 안에 있지 않은 모든 삶,

법, 행위는 우리의 양심을 힘들게 하기 때문이다.

(2) 10장 3-4절

- 1) ‘먼 곳에서 태풍처럼 재난이 닥쳐오는 그 날’은 아시리아왕의 침공이다.
- 2)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너희 재산’은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

c. [사 10장 5-19절] (아시리아를 벌하는 야훼의 손)

1. 안소근 교수의 해석

(1) 단락의 개론

1) 아시리아에 대한 징벌의 선포이다. 일반적으로, 아시리아 왕은, 산헤립[기원전 705-681년 재위]이고, 이 단락은 기원전 701년의 아시리아에 의한 예루살렘 포위(남왕국 유다의 대부분 영토는 이미 아시리아에게 빼앗겼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아마도 시리아-에프라임 전쟁 때[기원전 733년]부터 시작하여, 산헤립의 침공 때[기원전 701년]까지 계속된 아시리아의 침략을 전반적으로 깔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아시리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하여 자신을 몽둥이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분노의 도구가 된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힘이 강해서 다른 민족들을 점령할 수 있다고 교만하여 다른 민족을 파괴하려고만 했다. 그래서 이제는 아시리아를 벌하신다.

3) 바탕에 있는 생각은 이방 민족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재앙이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믿음이다.

4) 따라서 <이사야서>제2부(40-55장 제2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페르시아인) ‘키루스’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해방이 이루어

진 것도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의 업적』이다.

(2) 각절 주해

1) 10장 5절 : 불행하여라, 내 진노의 막대인 아시리아! 그의 손에 들린 몽둥이는 나의 분노이다.

① 아시리아가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은, <이사야서> [5:26-29, 7:18-25, 8:5-8]에서도 나온다.

② 선택에는 이에 부응하는 더 큰 믿음이 요구된다. <이사야서> 제7장에서, 아하즈 왕에게 요구했던 믿음, 그리고, 지금 이 본문에서 요구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하여 당신 백성을 칠 때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뻗친 손을 알아보는 믿음이다.

2) 10장 6절 : 나는 그를 무도한 민족에게 보내고 나를 노엽게 한 백성을 거슬러 명령을 내렸으니 약탈하고 강탈하며 그들을 길거리 진흙처럼 짓밟게 하려는 것이었다.

① 위에서의 연대추정에 따르면, 이 절에서 말하는, 무도한 민족(=경건하지 않은 나라), 나를 노엽게 한 백성은 남왕국 유다를 가리킨다.

② 히브리어 ‘베고이’(=한 나라를 치게 하며) 중 ‘고이’는 이방 민족을 뜻하며, 하나님과 그 백성 유다의 관계가 이미 깊이 손상되었음을 암시.

③ ‘그들을 길거리의 진흙처럼 짓밟게’의 의미는 경작지를 파괴하여,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10장 7-8절 (7절) 그러나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한 뜻을 마음에 품지도 않았다. 오로지 그의 마음속에는 멸망시키려는 생각과 적지 않은 수의 민족들을 파멸시키려는 생각뿐이었다. (8절) 사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의 제후들은 모두 왕이 아니냐?”

① 아시리아가 이스라엘 땅을 황폐하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결정 때문임을 모르고, 자신의 힘(군사력) 때문이라 자만에 빠져있었다.

② 10장 8-11절과 10장 13-14절은 모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해내실 수 없다고 공언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라는 뜻이다.

③ <이사야서> 36-37장은 ‘산헤립의 침공’, ‘히즈키야가 이사야에게 문의하다’, ‘이사야가 아시리아를 꾸짖다’, ‘아시리아가 격퇴되고 시온이 구원받을 징조’, ‘산헤립의 말로’이다. <왕하 18-19장>도 같은 내용이다.

4) 10장 9절 : 칼노는 카르크미스처럼 되지 않았느냐? 하맛은 아르파트처럼 되고 사마리아는 다마스쿠스처럼 되지 않았느냐?

① 칼노는 시리아 북주도시, 카르크미스는 유프라테스강변 도시. 하맛은 시리아 중부도시, 아르파트는 시리아 북부도시이다.

②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 사르곤 2세에게 정복당했다[BC 723/2]. 다마스쿠스는 아람의 수도로 티글랏-필에세르3세에게 함락됨.

5) 10장 10-11절 (10절)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보다 더 많은 신상을 차려 놓고 우상을 섬기는 이 왕국들을 내 손이 장악한 것처럼 (11절) 사마리아와 그 신상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내가 예루살렘과 그 신상에게 하지 못하겠느냐?

① 우상을 섬기는 많은 다른 나라들은 물론 남왕국 유다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던 북왕국 이스라엘도 아시리아의 손에 넘어갔으니, 남왕국 유다도 희망을 버리라는 뜻이다. 즉 아무도 아시리아 앞에서 버텨낼 수 없었다.

② 특히 ‘우상을 섬기는 이 왕국들을 내 손이 장악한 것처럼 그렇게 내가 예루살렘과 그 신상들에게 하지 못하겠느냐?’는 아시리아 왕이 스스로 신(神)의 위치에 올라서려고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직접 대결하려고 하는 교만을 가리킨다.

6) 10장 12절 :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을 다 마치신 다음, 아시리아 왕의 오만한 마음에서 나온 소행과 그 눈에 서린 방자한 교만을 벌하실 것이다.

① ‘주님께서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을 다 마치신 다음’은 주님의 심판인 아시리아의 침공이 남왕국 유다를 철저히 파괴했다.

② 자신의 손으로 이룩한 일이라 교만하게 믿었던 세상 정복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도 치시리라. 인간이 교만할 때 언젠가 벌어지게 되는 결말이다.

7) 10장 13절 :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내 손의 힘으로 이것을 이루었다. 나는 현명한 사람이기에 내 지혜로 이루었다. 나는 민족들의 경계선을 치워버렸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았으며, 왕좌에 앉은 자들을 힘센 장사처럼 끌어내렸다.”

① 이 구절은 역설적으로, 힘과 지혜는 하나님께 속하며, 인간이 자기 지혜와 힘을 자랑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함을 보여주고 있다. [사 40:26-28-29-31]와 [신 8:4-6-11-14-20]에도 이렇게 있다. 바울 사도도 [고전 1:18-21-23-25-30-31]에서도 그렇게 말한다.

② ‘민족들의 경계선을 치워버렸고’란 대규모 강제 이주이다. [왕하 17:6-24]에 이렇게 있다. 이로써 민족적·종교적 정체성이 사라지게 된다.

8) 10장 14절 : 내 손이 민족들의 재물을 새 등지인 양 움켜잡고, 버려진 알들을 거두어들어듯 내가 온 세상을 거두어들였지만, 날개를 치거나 입을 열거나 재잘거리는 자가 없었다. 아시리아의 힘에 맞설 수 있는 민족은 하나도 없었다는 뜻이다.

9) 10장 15절 : 도끼가 도끼질하는 사람에게 뿔낼 수 있느냐? 톱이 톱질하는 사람에게 으스스할 수 있느냐? 마치 몽둥이가 저를 들어 올리는 사람을 휘두르고 막대가 나무도 아닌 사람을 들어 올리려는 것과 같지 않느냐?

① 도끼의 비유는 아시리아의 군사력이 강력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문제는, 그 도끼가 스스로 움직인다고 착각하고 오만했다는 데 있다. 이것은 [사 10:13]에서도, 잘 나타난 바 있다.

② ‘도끼질하는 사람’, ‘톱질하는 사람’, ‘몽둥이를 들어 올리는 사람’, ‘나무도 아닌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가리킨다. 아시리아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고,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③ [사 10:16-19]은 계속해서 ‘아시리아’를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와 유다 또는 이스라엘을 향한다고 보는 견해가 대립한다.

10) 10장 16절 : 그러므로 주 만군의 주님께서는 그 비대한 자들에게 질병을 보내어 아위게 하시리라. 마치 불로 태우듯 그 영화를 불꽃으로 태워 버리시리라.

① ‘불’과 ‘불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하여 나타나시는 것이며, ‘그 비대한 자’와 ‘그 영화’는, 문맥상 인간의 교만함과 불순종이다.

② 즉 인간은 부와 권력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착각하고, 자신의 힘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간다고 생각하게 되기 쉽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화를 거두어가심으로써 그 영화가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인간이 알게 하신다.

③ [시 73, 4:7]에도 이렇게 있다.

11) 10장 17-18절 : (17절)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는 불길이 되시어 그의 영경귀와 가시덤불을 단 하루에 태워 삼켜 버리시리라. (18절) 그 화려한 숲과 과수원을 그분께서는 모조리 파괴시켜 버리시리라. 그러면 그는 병자처럼 말라 가리라.

① ‘이스라엘의 빛’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바로 그분을 가리킨다. ‘닥쳐오는 재앙’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는 순간을 말한다. 하나님 바로 그분이 불이 되셔서 심판하신다.

② 만일 [사 10:16-19]의 단락을 아시리아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라 한다면, 하나님은 아시리아를 징벌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해주신다는 의미가 되고, [사 10:17-18]에서 ‘파괴되는 것’은 아시리아이다.

12) 10장 19절 : 그 숲의 나무들 가운데 남은 것은 몇 그루 되지 않아 아이라도 그것들을 셀 수 있으리라.

① [사 10:16-19]이 아시리아에 대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맡기시고 힘을 주실 때, 그 모든 게 하나님께 속함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업적인 양 자랑했던, 교만한 아시리아를 무너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기 위치와 처지를 알게 하신다는 뜻이다.

② 결국 [사 2:11]의 원칙(사람의 교만한 눈은 숙여지고, 인간의 오만은 꺾이리니 그 날에 야훼 홀로 드높으시리라)의 구체적 실현이다.

2. ‘루터’의 해석

1) 10장 5-6절

① 아시리아 왕인 살만에셀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폐허로 만들 때 일어난 일이다.

② 북왕국 이스라엘이 포수(捕囚)를 당할 때[BC 723~2]를 가리킨 듯하다.

2) 10장 8-9절

이사야 예언자는, 이제 경건한 이들을 안심시킨다. 즉 비록, 이스라엘에 대한 매가 이스라엘을 멸절시킬 듯이 보일지라도, 아시리아는 자신의 멸망을 재촉하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

① 아시리아 왕은 자신의 군사력과 그 동안의 승리들을 자랑하고 있다. 이 적의 자랑은, 근심에 빠진 백성들을 불안하게 하고 동요시킨다. 아시리아 왕 살만에셀은 열 종족들을 무찔렀고, 이제 유다만 남았다.

② 유다 백성들은 겁먹고 있는데, 이사야 예언자가 위로한다. 즉 아시리아 왕의 위협은 헛된 것이다! 승리는 유다에게 일어난다!

③ 그러나 일어나는 현실을 볼 때, 그 위로는 믿기 어렵다. 그럼에도 경건한 사람들은 이 위로를 믿었고, 복된 결과가 뒤따랐다.

④ 영적 환난에서도 죄의 힘과 사망의 힘은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한 영혼을 일으키고, 위로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약속하기 때문이다. [요 11:26]에도 있다.

⑤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 안에서 붙잡는 사람을, 절망하고 의심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그 절망과 의심이 제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구원하고, 모든 위험에 대하여 승리하게 만든다.

⑥ 이런 방식으로 성서 말씀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도록 적용해야 한다. 환난이 우리를 압박하더라도 동일한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서 역사(활동)하시기 때문이다. 영적 환난이 몰아칠 때 우리는 가) 우리의 약함도 보지 말고 나) 적의 힘의 강력함도 보지 말고, 오로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연코 바라보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확고하게 만들어 절망하지 않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⑦ 대저 하나님은 영적이든 육적이든 우리의 원수를 물리적, 현실적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패배시키시려 하시기 때문이다. [고후 12, 9-10]에 이렇게 있다.

⑧ 9절의 ‘갈로’는 바빌론의 후방에 있었다고 본대[대하 35:20]. [창 10:10]. 또한 9절의 ‘하맛’은 ‘안디옥’을 가리킨다.

4) 10장 10-11절

① 아시리아 왕은 교만해져서 가) 자신의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고 나아가, 나) 자신의 신들도 더 강하다고 자랑한다. 그로써 아시리아 왕은 유다 백성에게서 가) 그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나) 야

훼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② 이것들은 모든 압제자와 우상숭배자들이 하는 짓이다.

③ 우리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유지한다면 사탄이 패배한다.

④ 이 기사는 정말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 쓰여진 것이다. 우리가 가) 이런 영적 공격을 혼자 당하는 것도 아니고 나) 또한, 이런 영적 공격을 당하는 최초의 사람들도 아님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가) 경건한 사람들이 겪는 동일한 환난과 나) 동일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환난을 겪는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큰 위로를 받는다. 만일 모른다면, 환난을 하나님의 진노의 징표로 받아들일 것이다.

⑤ 이 기사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하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계시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섬김’을 지정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약성서에서는 ‘세례’와 ‘성찬’이 지정되어 있고, 세례와 성찬은 하나님의 외관(외양)이다.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은 언약궤와 약속과 할례와 희생제물로 자신을 드러내셨다. 이 외적인 것들과 섬김들 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달리 알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들을 통하여 자신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다.

⑥ 그런데 세상은 종교와 예배에 있어 혼란스럽고 무질서하다. 세상은 ‘한 분 하나님’을 섬기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자신의 공상대로 섬길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 안에서 명하시고, 지정하지 않은 예배란 한갓 우상숭배이다. 참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아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표시(상징, 심볼, 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⑦ (루터 당시의) 수도승들도 단지 자신들이 공상해낸 표시들 즉, 삭발한 머리, 금식의 준수, 기도문 암송, 가톨릭의 화체설에 따른 미사의 준수로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한다. 이런 수도원의 규정과 법규를 지키는 수도승들이 아무리 거룩하게 지킨다 하더라도 그저 우상숭배자일 뿐이다.

⑧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명령하신 표시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그것 외에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다.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알 수는 없다. 사탄이 된 악천사(惡天使) 루치퍼 [Lucifer]는 영 안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했다. 그래서 루치퍼는 넘어졌다 (타락했다).

⑨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외관, 즉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그것은 세례와 성찬의 외적 표시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절대로 직접 만나려고 해서는 안 된다.

⑩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모습(형상), 즉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와 세례와 성찬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에서 반드시 자신을 만나게 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⑪ 구약시대에는 성전(聖殿=Temple)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자신을 섬기도록 명하셨기 때문이다.

⑫ 여기서 살만에셀 왕은, 유대인들아! 너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신들을 섬기던 다른 민족도 다 내가 멸망시켰다. 그러니 너희 하나님 야훼도 결코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조롱하고 있다.

⑬ 사탄은 그리스도 신자를 이렇게 조롱한다. “그리스도는, 너희를 지켜 줄 수 없고, 지켜 주려고 하지도 않는다! 너희의 신앙은 헛된 것이다!”라는 말로써! 이 사탄의 불화살에 맞서려면, 확고한 믿음이 필요하다:

즉, 설령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다 버리신다 해도 나를 버리시지 않으신다. 비록 내 죄가 아무리 많고 크더라도, 그리스도의 고난(고통)은 더 크다.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표시에서 이것을 안다.

⑭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의 고난은 너의 죄 때문이다. 나는 너의 죄값을 하나님께 다 지불했다!”라고.

⑮ 참 하나님에 대한 성령의 판단은 사탄을 이긴다. 그리고 도망치게 만든다. 하나님께서 단지 영 안에만 계시지 않고 육으로 되셨고, 또한 세

레와 성찬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참으로 큰 위로가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 표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 죄를 위하여(=우리 죄 때문에) 충분히 치루셨고, 그래서 죄의 용서와 영원한 의로움과 생명을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가질 것이라고 증언하신다.

5) 10장12-14절

① 유다인에 대한 심판은, 멸절을 위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고, 자녀를 징계하시는, 아버지로서의 징벌이다.

② 이제, 13절 이하에서 산헤립 왕과 살만에셀 왕이 품었던 생각이 폭로된다. 여기서 산헤립 왕의 교만이 묘사된다: ‘나는 나의 힘있는 손으로 이것을 이루었다. 나의 지혜로 이것을 이루었다. 이 강하고 슬기로운 적을 맞아, 유다 왕 히스키야는,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③ 그러나 의인이 절망의 심연에 빠지려는 순간, 악인의 멸망이 임박했다. 교만의 절정에서, 거짓 안전의 절정에서 악인은 멸망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교만을 참으실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한없이 축복과 은사를 주시지만, 교만하여 「바로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 (=Ego und Feci !)」소리치면, 모든 것이 끝이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참으려 하지도 않으시고, 그것을 참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④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는 저주스런 말을 조심하자! 만일 그렇지 않으면 결핍과 수치와 환난과 칼이 임할 것이다!

6) 10장15-16절

① 아시리아 왕은, 내 백성을 징벌하기 위한, 나의 톱이고, 나의 도끼이다. 따라서, 아시리아 왕이, ‘내가 내 힘과 내 지혜로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교만한 것은 어리석다. 나 아훼가 그것을 이룬 것이다!

② 이 구절은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 하나님께서 세상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신다!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는다면, 톱이나 몽둥이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세상 왕이 분노하고 협박하더라도 우리는 기도하며, 우리의 직무를 기다리려 한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서 세상 왕의 힘과 그들의 손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데 있다.

③ 만일 하나님께서 세상 왕을 통하여 우리를 낮추시려고 하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렇게 하소서! 제가 낮아지리이다!’ 말하려 하며, 하나님께서 세상 왕의 분노를 원하지 않으시면, 그들의 분노는 헛되고 말 것이다!

④ 이 비유는 우리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 가르친다!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자들과 달리, 우리는 선한 것도 할 수 없고, 참으로, 악한 것도 행할 수 없다! 톱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해낸 일도 톱을 켜 사람 이 해낸 일이다. 사람이 톱 켜기를 중단하면 톱은 녹슬 뿐이다.

⑤ 어떤 자들은 ‘사람과 생명 없는 톱은 다르다. 그러니 이 비유는 적절 하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한다. 그러나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 우리가 창조주를 바라볼 때 우리의 의(義)와 인간적 지혜, 힘은 그저 한낱 몽둥이나 지푸라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7) 10장17-19절

① 하나님께서 산헤립 왕의 군대를 어느 날 밤 그분의 천사를 통하여 치신 것을 가리킨다. [왕하 19, 35]에 이렇게 있다.

② 이런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다! 우리의 빛이시고, 축복이시다. 구원’이시고, 위로이시다. 그러나 원수에게 야훼 하나님은, ‘불’이 되신다.

③ 이사야는, 산헤립 왕을 조롱하여 ‘가시덤불과 엉겅퀴’라고 부른다.

④ 산헤립 왕야! 너희 군사가 많다고 ‘우거진 숲’이라고 부르지만[마치 갈멜산이나, 잘 정리된 경작지처럼] 내 앞에서는 쉽게 불타버리는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불과하다! 바로 이것이 악인의 말로이다!

⑤ 하나님은 잠깐 약하고, 조롱을 받고, 억눌림받으나, 끝내는 적을 태

읽버리는 불이다. 루터 당시의 가톨릭 교황주의자의 말로도, 이와 같았다.

3. ‘칼뱅’의 해석

1) 10장 5절

① 하나님의 행위(=역사)와 인간의 행위를 구별하면, 다음과 같다.

가)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행동하고 존재한다[행 17:28, 욥 12:1·10, 시 104편, 단 5:1·3·5·6·17-18·20-23].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의 권능에서 나온다.

나) 이 대목은 악인을 강요하고, 지휘하시는 특별한 방법이다.

다) 택함 받은 그리스도 신자를 성화(=성결=聖化)의 영으로 인도하신다.

② 그러므로 압제자나 강도나 다른 어떤 인간이나 외세나 그 어떤 것이 우리를 공격하고 고통스럽게 만들 때 단순히 하나님의 손을 보아야 한다. 어떤 것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확신해야 한다.

2) 10장 6-7절

① 아시리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았다고 해서 아시리아가 자신의 과도한 잔학행위를 변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이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다.

②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방법에는 다음 두 가지가 있다.

가) 그분의 비밀스런(숨겨진) 명령(이는 사람이 알 수 없다)과 나) 그분의 율법이다.[하나님은 당신의 율법 안에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신 대

③ 흔히 광신자들은 자신의 죄를 변명할 때, 숨겨진 하나님의 명령을 핑계거리로 든다. 이들에게는 자신의 양심이 증인이고 법관이다.

④ 그러므로 위 두 가지의 명령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가) 우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율법 안에서 드러내실 때, 우리는 숨겨진 명령을 찾아서는 안 되며, 무조건 그 율법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은 물론 악인을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이 때, 그

악인은 (a) 자신이 그로써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b) 또한 자신이 하나님을 섬길 의사도 가지고 있지 않다.

나) 악인들이 자신의 죄의 정욕(탐욕)에 복종할 때,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아니다.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율법’ 안에 선포되어 있으니 다른 어떤 것도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행위(일)를 하는 것이 아니다. 사탄의 행위를 하는 것이다. 악인들은 자기 자신의 죄의 정욕(탐욕)을 섬기기 때문이다.

⑤ [엡 2:1-2]에는 이렇게 있다.

⑥ 아시리아에게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도가 전혀 없고, 오직 서두르면서 자신의 죄의 정욕(탐욕)과 야욕과 탐심에 따를 뿐이다. 물론 아시리아는 하나님이 보내셨고, 이스라엘을 침략군의 수법으로 약탈하라고 명하신 것이다. 그와 동시에 그 이상 어떠한 남용도 허용되지 않는다.

⑦ 어떤 주해자는 ‘어떻게 이, 야수적인 나라 아시리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할 수 있단 말인가?’ 의문을 제기하나, 하나님은 그분의 비밀스런 명령을 알지 못하고, 그 명령을 실행할 의사도 없는 자를 복종하게 만드셔서 자신의 뜻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기술과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계신다.

⑧ 또 어떤 주해자는 ‘하나님의 선민을 야만적 이방국가를 통해, 치실 수가 있는가? 야만국의 죄악은 결코 이스라엘의 죄악보다 작지 않은데 말이다! 이것은 기묘한, 질서의 전복이다’라고 이의를 제기한다. 그래서 이사야는 답변한다. “그러나, 아시리아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아시리아도, 때가 되면, 차례가 되면, 정당한 심판을 받는다. 아시리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도 이미 준비되어 있다.” 이사야 예언자는 모두에게 공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선포한다.

3) 10장 8-11절

① 여기서 이사야 예언자는 왜, 아시리아 자신이 하나님의 몽둥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한다. 교만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다. 아시리아는 자신보다 우월한 어떠한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다. 자신의 우월함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섭리(계획)에 복종할 수 없다.

② 자신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공상하는 자는 신성모독적 교만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전횡(횡령)하는 자이다. 실로 부와 권력과 명예를 넘치게 가지고 있는 권세자들은 이렇게 눈이 멀어서 자신이 단지 ‘사람’일 뿐인 것을 알지 못한다. 이들은 자신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의지와 인식없이도 이를 수 있고, 그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을 정도로 자신이 가진 것에 중독되어 있고, 혼란되어 있다.

③ 정말로 우리가 지금 강력하고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교만하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우리를 높이 세운 그분은 이와 똑같이 내치실 수도 있기 때문이다(로 11:20-22). 아시리아의 교만을 이렇게 꾸짖으시는 분이 우리가 자신의 의와 거룩한 행실을 자랑할 때, 우리 자신의 힘으로, 신생될 수 있다고 빠질 때, 얼마나 더 꾸짖음을 하나님께 받겠는가? 이런 짓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영광을 빼앗는 짓이기 때문이다.

④ 아시리아의 교만은 그 끝을 모르고, 치솟는다. 악인은 하나님에 맞서서, 자신을 더 치켜올리는 짓도 서슴지 않는다. 실로 산헤립 왕은 경배받는 모든 것에 맞서서 자신을 높인다.

⑤ 신성모독이 표현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가) 첫째로,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치켜세우는 것(그래서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나) 둘째로, 참 하나님(=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거짓 신의 구별을 없애는 것이다. 첫 번째의 결과 예컨대 산헤립 왕이 아폴로 신과 주피터 신을 멸시했다면, 의심의 여지 없이 그것들을 우상으로서가 아니라, 그 새겨진 신상의 이미지 안에 있는 그 어떤 신적인 것을 멸시한 것이다. 두 번째의 결과 산헤립 왕은 살아계신 참 하

나눔을 이방민족의 거짓 신들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고, 감히 이방의 거짓 신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까지도 조롱하였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확신, 즉 우상들보다 더 큰 권능이 아훼 하나님께 있다는 확신을 조롱하였다.

4) 10장 12절

① 악인의 교만은 [사 10:10]에 잘 나타나 있다. 이것은 마치 아시리아 왕이 모든 신을 정복한 것 같다.

② 여기서는 두 가지가 말해진다. 가) 하나님은 악한, 아시리아의 왕을 벌하신다는 것과 나) 그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③ 아시리아의 교만은 신성모독과 관계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교만을 참지 않으신다. [잠 3:34]에는 이렇게 있다.

5) 10장 13-14절

아시리아는 자신의 승리를 자신의 힘과 지혜에 돌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6) 10장 15절

① 우리가 승리나 성공을 자신의 슬기와 능력 때문이라고 자랑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 된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출 20:5).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이 다른 자에게 주어지는 것을 허용하시지 않기 때문이다[사 42, 8; 48, 11].

② 여기서 이사야 예언자가 사람을 도구에 비유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이제 자유의지론자들은 이렇게 주장한다. 물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에 의하여 움직여진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각 피조물의 본성에 따라서 조종된다. 즉 인간은 자기 자신의 선택과 자유의지에 의해서 조종된다.

③ 이 틀린 주장(자유주의론)은 물론 세계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유지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특수한 개별 움직임까지 규율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이사야 예언자는 정당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별 행위까지도 주재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준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 있는 것이지 악한 인간의 변덕에 달려 있지 않다고 선포하는 것이다.

④ 자유주의론자들은 이사야 예언자는 인간을 무생물인 몽둥이와 톱에 비유해서 인간의 의지와 판단능력을 제거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반대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다. 비록 인간을 톱, 몽둥이에 비유하더라도 모든 면에서 닮아있다는 것이 될 수는 없다. 즉, 어떤 점들에서는 닮았으나, 또 다른 점들에서는 다르다.

⑤ 악인들도 본성상 자신에게 속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악인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비밀스런 명령에 의하여 지휘되지 않고는 어디든 움직여질 수 없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지란 문제는 잘못 제기된 문제일 뿐이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의 목적들을 제어하신다면, 인간의 생각과 실행(=행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든 그리로 돌리신다.

⑥ 물론 인간은 끊임없이 계획을 세우고, 이런저런 일들에 종사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의 의지에 반하여 우리를 억지로 끌고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오히려 하나님은 놀랍고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인간의 모든 행위를 규율하시지만, 여전히 인간은 자신의 의지의 실행권을 가지고 있다.

⑦ 이 절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인간의 모든 노력은, 만일 하나님이 그것이 성공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결실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따라서 아시리아는 비록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시도했더라도 만일 주님께서 그 승리를 주시지 않으셨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시리아는 자신의 성공이 오로지 하나님의 덕택인 이상 자신의

승리를 빼길 자격이 있다고 주장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5) 10장 16절

① 이것은 15절의 연속이다. 즉 주님은 아시리아의 교만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를 보여주신다.

② 살찐 자는 그의 군사력과 부의 비유이고, 수척함은 그 철저한 멸망을 가리킨다.

6) 10장 17절

① 하나님은 종종 삼키는 불로 불리신대신 4:24, 신 9:3, 히 12:2]. 그리고 하나님은 종종 다른 관점에서 ‘빛’으로 불리신대사 60:20, 미 7:8].

② ‘아시리아의 형극과 질려가 소멸되며’는 이스라엘 안에 비취는 하나님의 은총은 원수들을 삼키는 불과 같은 것이라는 뜻이다. 그 삼키는 불은 갑자기 그리고 예상하지 못하게 큰 화마(火魔가)가 되어 아시리아를 덮칠 것이다. 그 때 아시리아는, 불길에 태워지는 삼의 가는 실 같을 것이다.

7) 10장 18절

① ‘전부(모조리)’는 몸에서 영혼까지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징계시에는 몸은 멸하시나, 영은 구원하신대고전 5:5]. 그러니, 몸과 영을 모두 태우시는 하나님의 복수가 임할 때는 얼마나 처참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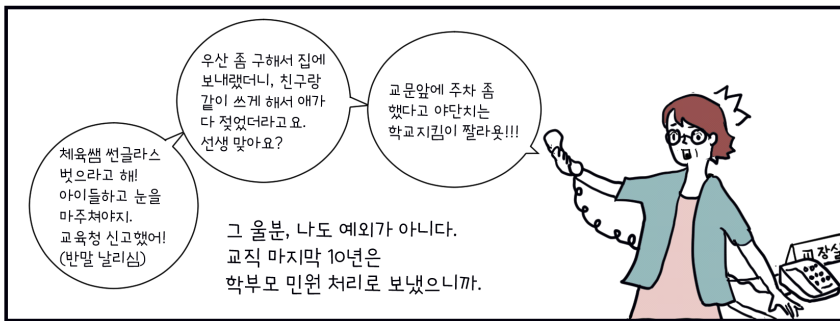
② 또한 이 절은 영혼이 썩어 없어진다는 것을 도출하지는 않는다. 즉 단지 영혼 위에도 하나님의 복수가 임하신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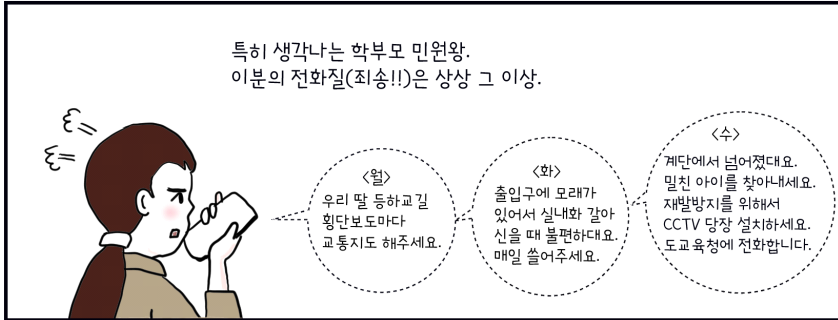
③ 이 절은 의인(이스라엘)에게 위로를 준다.

만화로 보는 한 줄 성경

메나리

<엄마가 다해 줄게>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옳은 일을 하는 데로 기울어지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악을 행하는 쪽으로 기울어진다.
(전도서 10장 2절)

시편 103편, 내 심령(心靈)아 야하웨를 찬양하라

한 정 주

제103편(개역한글)

다윗의 시

1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2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찌어다

3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4 네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5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6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7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8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자하심

이 풍부하시도다

9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10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11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12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13 아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14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15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16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17 여호와와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18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19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20 능력이 있어 여호와와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1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2 여호와와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1. 틈손성경

이 장엄한 시는 하나님의 개인적 축복과(1-5절), 그의 국가적 축복과(6,7절), 그의 사죄하는 사랑과(8-14절), 그의 영원한 사랑을(15-18절)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일반적인 권면으로 끝맺는다(19-22절).

103:1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이 2절과 22절, 104편1절과 35절에서도 반복된다. 여기서 ‘송축’이란 찬양 이상의 것으로 사랑과 감사함으로 찬양함을 의미한다.

2. 그랜드종합주석

하나님을 찬양하는 밝고도 힘찬 분위기가 시 전편에 감동적으로 흘러넘침으로써 다윗의 감사 예배시 또는 찬양시의 진수를 볼 수 있는 시이다.

다윗은 그가 체험한 구원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인자하심에 대하여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찬양하고 있다. 본시는 이스라엘의 가을철 장막절 예배 의식에서 예배용 찬송으로 불리워졌다.

◎ 초막절(=장막절,수장절)

출애굽 당시 40년 광야 생활 동안 지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 히브리 종교력으로 7월 15일부터 1주간 초막을 짓고, 거기서 온 가족이 거하면서 지켰던 절기(민29:12-40; 신 16:13). 일명 ‘장막절’(요7:2) 절기 동안 노동이 금지되었으며, 첫 날과 마지막 날에 성회가 열렸고 매일 화제를 드렸다(레23:34-43). 또한 이때는 농사철이 끝나고 곡식을 저장하는 시점에 열렸던 관계로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추수 감사절 성격도 있었다. 그런 점에서 ‘수장절’이라고도 부른다(출 23:16). 그리고 이 날은 ‘유월절’, ‘칠칠절’(오순절)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로 지켜졌다(출34:22).

[네이버 지식백과] 초막절 [草幕節, Feast of Tabernacles] (라이프성경사전)

103:1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다’(바라크)라는 말은 ‘찬송하다 (쉬르), ‘찬양하다(자마르)’와는 다른 뉘앙스를 갖는다. 즉 ‘찬송하다’, ‘찬양하다’가 노래나 악기를 사용한 외적인 활동을 강조하는 반면, ‘송축하다’는 ‘복을 빌다’, ‘축하하다’란 의미가 있는 말로 사랑과 감사에서 우러나오는 내적인 찬양을 나타낸다. 내 속에 있는 것.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케레브’로, 문자적 의미는 ‘중양’, ‘...속에’라는 의미이다. 레위기에서는 ‘내장’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고(레1:9,13절), 후대에는 ‘사람의 마음’, 혹은 ‘본질’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었다.

103:3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것은 여호와와 모든 은택 중에서도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것이다. 여기서 ‘사하다’(사라흐)는 능동분사형으로, 이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강조한다.

103:6 지금까지(1-5절)는 주로 하나님께서 시인 개인에게 주신 은총에 대해 찬양하였다. 이제 6절에서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곧 공동체적 축복에 대해 감사 찬송을 드리고 있다. 이는 인칭대명사가 ‘내’, ‘네’에서 ‘우리’로 변환한데서 쉽게 알 수 있다.

103:15 **인생.**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에노쉬’로, 반드시 한번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로서의 인간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된다.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곧 시들어 버리듯이 인간의 영화가 아무리 크다 해도 부질없다는 의미이다.

103:16 **그것은... 알지 못하거니와.** 팔레스틴의 들에 핀 꽃들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열풍에 의해 어느 한 순간 시들어 버리고 만다. 그와 같이 인생의 영화도 환난과 질병 등에 의해 한 순간에 사라지고 만다.

103:18. **그 언약을...행하는 자에게 로다.** 여호와와 인자는 끝이 없지만, 그 대상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한한다.

103:22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에 히브리시의 한 특징인 평행법 중의 하나가 잘 나타나 있다. 즉 1절 처음과 22절 끝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같다. 이러한 히브리시의 평행법을 ‘봉투식’(envelope) 혹은 ‘두미일치’(頭尾一致, 처음과 끝, 머리와 꼬리가 같다)

용법이라 한다.

(그랜드종합주석9, 734-738쪽)

3. 김교신

온 몸과 온 마음으로써 야하웨를 송축한다는 것이다. 명확한 언어로써 구체적으로 송축하는 것이 아니라, 오장육부(五臟六腑) 전체와 전신의 각 세포 세포에서 나오는 신음소리이다. 동시에 그 모든 은혜를 잊지 않고,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하는 것이다. 진실로 야하웨는 나를 생명의 파멸에서 구속하셨기 때문이다. (시편, 유희세 지음, 성경말씀사, 6쪽)

4. 유희세

1 다윗의 시

내 심령아, 야하웨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여,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라].

2 내 심령아, 야하웨를 찬양하라.

그의 모든 혜택을 잊지 말아라.

3 그는 네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는 네 모든 병환을 치유하시고

4 그는 네 생명을 파멸의 구렁에서 구속하시고

그는 네게 은혜와 자비로 관을 씌워 주시고

5 그는 네 존재를 선한 것으로 채워 주시니

네 젊음은 독수리 같이 새로워진다.

6 야하웨는 의로우신 행동을, 그리고

모든 눌린 자를 위하여 공정하신 판정을 단행하신다.

- 7 그는 모세에게 자기의 길을 알리셨고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자기의 행동을 [알리셨다].
- 8 야하웨는 자비로우시며 전애(全愛)하시며
노하시기를 더디 하시고 은혜가 넘치신다.
- 9 그는 끝없이 경책(警責)하지는 아니하시고
노(怒)를 영원히 품지는 아니하신다.
- 10 그는 우리의 죄를 따라서 우리를 다루지는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서 우리에게 갚지는 아니하신다.
- 11 실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그의 은혜는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 위에 높다.
- 12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는 우리 죄를 우리로부터 멀게 하셨다.
- 13 아비가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듯이
야하웨는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 14 그는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알고 계신다.
그는 우리가 [흠의] 먼지라는 것을 기억하신다.
- 15 사람은 수명이 풀과 같이 짧아서
꽃 필 때도 들의 꽃과 같이 짧다.
- 16 실로 그 위로 바람이 지나가면 흔적도 없고
그 장소도 어디인지 알 수가 없다.
- 17 그러나 야하웨의 은혜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 위에 있고
그의 의는 자식들의 자식들에게까지 미친다.
- 18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계명을 행하려고
명심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 19 야하웨는 하늘에 보좌를 세우시고
그의 왕국은 만물을 통치하신다.
- 20 야하웨를 찬양하라, 그의 천사들이여
그의 말씀을 실천하는 강한 용사들이여,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기 위하여.
- 21 야하웨를 찬양하라, 그의 모든 천군들이여
그의 뜻을 행하는 그에게 봉사하는 자들이여.
- 22 야하웨를 찬양하라, 그의 모든 피조물이여
그가 통치하시는 모든 곳에서.
내 심령아 야하웨를 찬양하라.

이 시는 “내 심령아 야하웨를 찬양하라”(1절 처음)로 시작되고 “내 심령아 야하웨를 찬양하라”(22절 끝)로 끝맺는다.

1-2절은 시인이 자기 심령을 향하여 야하웨를 찬양하라고 거듭 강조한다. 3-5절은 시인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한다. 7-18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다. 끝으로 19-22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전 우주의 하나님 찬양을 노래하고 그 찬양대 속에 시인 자신도 들어간다.

◎ 경책(警責)

정신을 차리도록 꾸짖음. (시편, 율희세 지음, 성경말씀사, 252-254쪽)

5. 우치무라 간조

철두철미 찬양의 노래다. 그 가운데 슬픔이나 불평 불만은 흔적조차 찾아 볼 수 없고, 시인의 마음은 감사로 차고 넘쳐 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영혼을 독촉해서 말한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영혼은 사람의 감정이 깃든 곳이다. 시인의 의식은 이미 충분히 여호와와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인식하고 있었다. 「나 자신아, 여호와와 은혜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를 느끼고 감동되어야」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이란 모든 기능과 모든 기관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는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이 그의 전신(全身)에 속속들이 스며들기를 원하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순서를 밝히 나타내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죄(불의)를 용서하시고, 그 결과로서 우리 모든 질병(주로 영혼의)을 고쳐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생명을 온전케 하신다. 그리하여 우리 생명이 완전케 되면 하나님은 그 인자와 긍휼로 우리 머리에 관을 씌우시고, 우리에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환희에 찬 생애를 보내게 하신다. 이런 은혜를 입은 자는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기 때문에, 그는 영구히 그 청춘의 활력(活力)을 잃지 않고, 달음박질하여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고단치 않게 된다.

이상은 시인이 자신의 심령상으로 체험한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役事)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만민의 하나님이다. 제6절부터 14절까지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공의를 기리고 그 공덕(公德)을 찬양하였다.

「억눌리는 모든 사람들」이란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권리를 침해당하고, 받아야 할 상을 받지 못하고 받지 않아야 할 벌을 받는 자를 하나님은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이다. 물이 얇은 데로 흐르듯이,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성이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동안에는 공의는 기어코 행해지고야 말 것이다. 그리하여 인류의 역사는 공의 실현의 과정이다. 감사하리로다. (6절)

「항상 책망치 않으시며」. 그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그의 뜻을 어기고 생

명수를 떠나 죽음의 길로 치달기만 하면 그는 불타는 사랑으로 그 자녀들을 책망치 않을 수 없으시다. 그렇지만 책망하는 것을 그는 기뻐하지 않는다. 그는 언제나 사랑하신다. 그러나 영원히 진노하시지는 않는다. 그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하시는 데는 신속하시다. (9절)

그는 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 우리의 허물을 멀리 옮기셨다. 그의 사유(赦宥, 죄를 용서해 줌)의 덕에 의해 우리의 허물을 하늘 저 끝까지 옮겨져 버렸다.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다. (13절)

우리는 또한 들의 꽃 같은 자다. 뜨거운 바람이 한번 그 위를 휘몰아치면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린다. (15-16절)

우리는 이토록 덧없는 존재임에 반하여,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것은 여호와와 그 공휼과 공의다. (17절)

그런데 그는 이를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훈계를 실천하는 사람 위에 내리신다. (18절)

여호와는 공의로써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보좌를 모든 하늘 위에 펴셨다. 「하늘」이란 능력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보좌를 하늘 위에 펴신 분은 만물 위에 정권을 잡으신 분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억눌린 자를 위하여 공의와 심판을 베푸시고(6절),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신다. (19절)

이리하여 시인은 다시금 하늘의 천군천사 및 우주만물에게 찬양하기를 재촉하여 말한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마지막으로 그는 다시금 자신의 영혼을 독려하여 말한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20-22절).

(우치무라 간조 전집 제13권, 설우사, 372-375쪽)

노평구 선생 소천 20주년 기념강연회 알림

안녕하십니까? 금년 9월 8일은 노평구 선생님이 하늘의 부름을 받고 우리 곁을 떠나신지 20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을 맞아 선생님의 신앙과 가르침을 기리고 우리에게 쏟아주신 진실한 삶과 사랑을 기억하고자 아래와 같이 기념강연회를 개최합니다. 함께 참석하여 선생님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23. 9. 16(토). 14:00-17:00
- 장소 :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4층 소망실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5)
- 연사
 - 한병덕 노평구 선생의 민족이상에 관하여
 - 장문강 바울, 루터, 노평구와 '하나님 앞'(Coram Deo)
 - 박상익 노평구 선생과 나

[기타 알림]

- * 강연후 저녁식사와 회고 인사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참가비는 저녁을 드시면 2만 5천원, 드시지 않으면 1만원입니다.
- * 소천 20주년을 맞아 묘소 참배에 함께하실 분들은
9월 8일 10시 30분 대전현충원 정문 앞에서 만나 같이 가고자 합니다.
- * 연락처: 노평구 선생 소천 20주년 기념강연회 준비위원회
(박완, 진익렬, 김은정, 반영운, 임세영)

노평구선생 소천 20주년 기념강연회 순서

사회: 반영운

[제1부] 14:00-15:00

개회기도: 박완.

강연1 : 바울, 루터, 노평구와 '하나님 앞'(Coram Deo) (장문강)

휴식 (20분)

[제2부] 15:20 - 16:40

강연2 : 노평구 선생의 민족 이상에 관하여 (한병덕)

강연3 : 노평구 선생과 나 (박상익)

16:40 : 가족 인사, 참석자 인사. (진행 : 사회자)

광고 - 저녁식사 식당안내 (2층 그릴 네오토로)

16:50 폐회

강연장 정리

2023 여름 한국무교회 전국집회 안내

1. 일시 : 2023년 8월 5일(토) 15시-18시,
8월 6일(일) 09시-15시
2. 장소 :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54-18 여성플라자 시청각실(4층)
3. 오시는 길 : 지하철 1호선 대방역 3번 출구 왼쪽골목 50m
차로 오시는 분은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참가비 : 1) 1인 40,000원 : 대관료, 교재, 식사 2회
(5일 저녁 식사는 ‘수라상 한식 부페’, 6일 점심은 도시락)
2) 숙박 신청자는 1인 40,000원 추가
(16명이 신청하였습니다.)
5. 참가비 수납
 - 미리 입금 : 농협 352-1396-3854-73 한정주
 - 현장에서 내셔도 됩니다.
6. 주의 사항 :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개인 컵 사용도 권장합니다.

7. 일정표

강의 40분, 휴식시간 10분으로 운영합니다.

일자	구분	강사
8.5 (토) 오후	15:00-15:40	진영선
	15:50-16:30	손문일
	16:40-17:20	최정일
	17:30-18:10	조득환
	18:10	저녁 식사 후 각자 숙소로 (식사 장소 : '수라상 한식부페')
8.6 (일)	9:00-9:40	김철웅
	9:50-10:30	장문강
	10:40-11:20	배지현
	11:30-12:10	김은정
	12:10-12:20	신우회
	12:20-13:10	점심 식사(도시락)
	13:10-15:00	감화회 - 참가자 모두 5분 발언

8. 기타 알림

1) 우리 집회는 철저히 성서 말씀을 중심으로 한 신앙집회입니다. 정치적 의견은 호불호가 다를 수 있으니, 강사님들은 명심해주십시오.

2) 숙소 신청하신 분은 모두 16명입니다. 이분들의 아침식사는 도시락으로 제공합니다. (숙박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교재는 당일 현장에서 나눠드립니다.

【 오류문고 안내 】

오류문고는 기독교 신앙 서적 3,500여 권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기독교 무교회 관련 서적을 거의 모두 찾아볼 수 있는, 작지만 알찬 도서관입니다. 구로구청의 작은 도서관으로도 등록되어 있는 민간 도서관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 연락처 : 왕정숙 010-8151-1930

☆ 오류문고 인터넷 카페 주소

<http://cafe.daum.net/oryubooks>

【 오류동 성서모임 안내 】

일시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오류문고

(오류역 1번출구 도보 5분)

연락처 : 조규철 010-2228-8200

【 부산 성서모임 안내 】

일시 :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00분

장소 : 부산 기장군 철마면 중리2길 14-7

연락처 : 손현섭 010-2060-5534



오류문고

구로구 오류동 경인로 8길 75
상가205호(오류동, 삼천리A)

성서신애사 연락처 : 손현섭

☆ 010-2060-5534

☆ sonhs0105@hanmail.net

☆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중리2길 14-7

우편번호 46050

월간 성서신애 제503호

2023년 8월

인	쇄	2023년	8월	1일	
발	행	인	손	현	섭
편	집	인	손	현	섭
인	쇄	인	김	진	열
발	행	소	성	서	신
우	46050	부산	기장군	철마면	중리2길 14-7
인	쇄	소	신	우	디
				엔	피

국 민 은 행
668402-04-021247

예금주 : 손 현 섭